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학의 발달로 인공적으로 영생을 누리겠다는 생각들이 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인성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오래 살든 계속 살아가며 구속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과 불변의 해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구원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1서 5:12)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6호 2013년 8월 1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인간생명의 끝,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 퓨포럼, '급진적 생명연장'에 대한 복음주의적 성경적 해답 제시 촉구

최근 노화의 미래를 둘러싼 의문이 부쩍 늘었다. 인간이 120세, 130세, 아니 그 이상까지 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이런 새로운 장수의 시대에 노화는 어떤 모습일까? 단지 생의 무기력한 막바지에 30년, 40년, 50년을 더하는 것뿐일까? 아니면 노화를 지연시켜 오래도록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지금의 100세가 과거의 60세와 같을까?

바로 유전공학의 기술과 칼로리를 대량 감소시킨 식이요법으로 인간의 노화를 방지해 거의 불멸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인간 수명 연장'이라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샘솟듯이 솟고 있다. 그 희망의 여운이 너무 진한 나머지 뉴스위크(Newsweek)는 커버스토리로 "인

간 불멸이 가능한가(Immortality)?"라는 기사를 찬반을 대표하는 과학자들의 견해를 지난달 초에 소개하기도 했다.

소위 노화를 방지해 '불사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지자, 복음주의적 여론 리서치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이처럼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인간 수명 연장 가능성 논의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윤리 지침이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급진적 생명 연장을 재검토해보는 연구서(To Count Our Days: The Scientific and Ethical Dimensions of Radical Life Extension)를 지난 6일 발표해 큰 반향을 받고 있다.

한 무관심 또는 생명의 탄생이 지닌 신비감의 상실일 것이다. 탄생이란 죽음의 다른 면이다. 영원히 산다면 탄생도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죽음이 있어야만, 탄생을 신비하고 경탄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노년지 지배하는 세계이다. 거기에는 노인들의 오랜 경험만 있지 젊음이 발산하는 창조성, 참신성이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인간을 정의하는 정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신과 같이 불사의 몸을 가진 존재로,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사의 몸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극이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죽어야 하는 운명"을 거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지프스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오히려 불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인간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희안한 권력 구조가 창출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결과는 죽는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초래되는 인구 폭발을 조절하기 위해 출산을 조절하고 죽음까지도 인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오직 전 지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전체주의 정부에서나 할 수 있을 것인바, 생식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통제 같은 현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인구조절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치일지 모른다.

(3면으로 계속)



영생을 갈망하는 인간이 과학의 힘을 빌려 '급진적 생명연장'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유전공학의 기술로써 인간 수명을 수백 년 이상으로 늘일 수 있다는 희망이 서서히 그 실현 가능성과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온다. 전 영국 수상 토니 블레이어의 유전공학 자문을 맡고 있는 존 해리스는 인간이 1,2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텔로머라제(telomerase)를 이용해서 염색체 끝부분을 늘이는데 성공한 미국의 라이트(Wright)는 앞으로 20년 후면 수명을 인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텔로미어(telomere, 말단소립)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붙어 있으면서 세포 분열 때마다 점점 짧아져서 어느 한계에 달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모든 체세포는 텔로미어의 지배를 받고 있고,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분열을 더 이상 하지 못하면 죽고 만다. 그리고 체세포의 죽음은 결국 인간 개체의 최후를 가져온다.

그러나 텔로미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세포들이 있다. 생식 세포와 암세포가 그것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텔로머라제는 효소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짧아진 텔로미어를 계속 복구시켜준다. 이에 따라 이들 세포는 죽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게 된다. 그렇다면 염색체 끝의 텔로미어를 계속 복구해 주면 수명을 끝없이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수명 연장이 야기시키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연금이나 사회 보장 비용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같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출산과 사망이 전체주의적으로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후손을 남기는 중요한 이유는 손자들이 커갈 때쯤이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만일 손자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후손을 남기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가장 우려되는 일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명이 엄청나게 연장되고, 심지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생명의 탄생에 대



2면 "Back to School!" 연마가 달라져야 이기도 달라진다!



3면 소속감 높일 때, 교회는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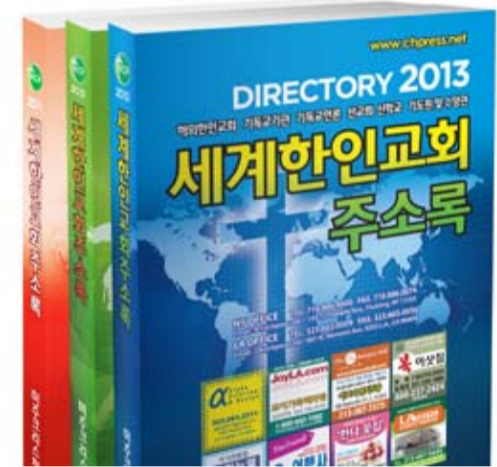
7면 인터뷰 더글러스김 HYM대표



16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육론 전도사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 사 고

###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 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 리스팅 작업 마감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당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내 가족처럼 열방을 품자! Embracing the Nations as my Family by Prayer!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등록 문의: Tel: (314) 368-2832, email: LHS5678@gmail.com  
to Register: www.GIMET.net / reg2013IPCAN

일정: 2013년 10월 9일(수)저녁 ~ 11일(금)저녁  
장소: 필라안디옥 교회 (담당: 호성기 목사)  
(비행편: Philadelphia International Airport (PHL) 국제공항, 비행기표를 구입하신 후 항공/경매 도착시간을 알려 주시면 픽업해 드립니다.)  
주소: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314)368-2832 이현석목사 LHS5678@gmail.com  
주최: KIMNET, 주관: 필라안디옥 교회 www.antiochchurch.org

선교도전 저녁 강사:  
박희민 목사, 한기홍 목사, 이성철 목사

주제강사 목사:  
임현수, 정인수, 송상철, 김용호, 조길순

- 네트워크별 사역발표:
1. 교회선교 교육 (이원상 목사)
  2. EM선교 (정민용 목사)
  3. 미전도종족사역 (안강희 선교사)
  4. 지도력개발 (강성일 목사)
  5. 선교지교회개척 (양태철 목사)
  6. 미디어 선교 (이종문 목사)
  7. 디아스포라선교 (이형석 목사)
  8. 전문인선교 (호성기 목사)
  9. 교육선교 (송제임스 목사)
  10. 세계캠퍼스사역 (안오섭 선교사)
  11. 선교사지원사역 (황선규 목사)
  12. 중보기도 사역 (김태진 장로)
- \*교회연합단기선교 (김혜택 목사)  
\*평신도 선교동원 (최동갑 목사)  
\*지킴 사역보고 (이동철 선교사)

선교 보고:  
나라별: 김상돈(파테말라) 강영기(미국)  
양창근(파라과이) 김성남(파테말라)  
서영준(베네즈엘라)  
선교 단체: 권중승, 김철용, 박신욱, 이상진  
교회: 김경식, 나성근, 임용우, 윤영호

등록비: 1차(8월31까지 \$50, 호텔포함 \$200), 2차(9월20까지 \$70, 호텔포함 \$250)  
부스 신청: 1차 (\$250 1인 부스당당자 호텔, 식사포함) 2차 (\$300)

제6회 IPCAN-2013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International  
Prayer  
Conference for  
All  
Nations







시론

제3의 인생을 산다



양준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우리 인간은 세 번 태어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후에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은 무엇 일까요? 그것은 사명 또는 소명감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으로 남은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황혼기, 지금까지 사회에서 해오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떠나는 은퇴 후의 삶은 아쉬움과 아슬아슬 자아유미가 있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출퇴근 시간, 자녀교육, 업무책임 등의 일상생활의 엄매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출세, 명예, 물질의 욕심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동안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맘껏 하다가 인생을 마쳐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속에 새로운 남은 삶의 목표가 설정될 때에 그 인생은 남은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 제3의 인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 태어날 때마다 인생을 보는 시각과 자세, 삶의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마찬가지로 남은 인생에 대한 확고한 소명감, 그것을 가지고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실버들의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의 의욕과 소망이 있습니다. 뉴저지실버선교회의 선교사훈련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석한 실버들이 새로운 사명의 준비를 위한 배움의 의욕으로 가득차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닦아온 지혜와 기술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목적,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여 진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수입(Income) 창출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봉제기술이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산부인과 의사이셨던 장로님이 병원과 교회에서 은퇴하신 후 이제는 중국에서 의료선교사로서 제3의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험회사에서 경리를 맡아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는 어느 선교회 본부사무실에서 선교회의 재정 관리를 맡아 선교사역에 동참하시는 집사님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직업과 교회의 직분에서 물러나게 되는 인생의 전환기를 제3의 인생을 위한 출발로 삼고 새로운 궤도를 향하여 남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실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하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 13, 14).

이 고백에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겸손과 거룩한 불만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거룩한 목표가 보여집니다. 위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소명이 불타고 있습니다. 앞을 향하여 달리는 거룩한 달음질의 소리가 힘차게 들려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헌신의 향내가 풍겨옵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제3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Back to School!" 엄마가 달라져야 아이도 달라진다!

크리스천패런팅, 2013 백투스쿨 부모 준비 요령 소개

'백투스쿨 시즌'이 다가오면, 모든 부모들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이제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미 개학한 학교도 있을 텐데, 방학숙제는 다 잘 끝냈는지 모르겠네요. 전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아이를 보면 걱정이 되요. 곧 시간 맞춰 등교도 해야 하고 에프터스쿨도 다니며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해마다 맞이하는 '백투스쿨' 진동에 대비, '크리스천 패런팅'은 크리스천 학부모들에게 실제적인 준비 요령을 제시해준다.



필 중요한 요소이다. 쉽게는 자기 물건 스스로 챙기기, 쓰고 난 물건 정리하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스

생' 당사자지만 '부모'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매우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부모의 현명한

여름방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몇 주만 있으면 학교에 돌아갈 시기가 됐다. 본격적인 개학 준비시기인 백투스쿨 시즌(Back to School season)이 돌아온 것이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령기의 아이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학교에 돌아갈 기대감과 더불어 정신없이 바빠지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의 마무리와 새 학

시 마무리 지어야 할 방학 과제물들을 확인하자. 부모들은 아이들의 썸머 리딩(summer reading)과 매스 북(math book) 등의 방학 과제물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혹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과제물을 진행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기 또한 바로 이때다. 또 개학하자마자 학교에서 각종 시험과 테스트들을 통해 아이가 방학 과제물을 잘 해왔는지를 확인하기

기의 준비를 잘 해야만 다가오는 새 학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또 어떤 부분에 부모가 아이들이 새 학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백투스쿨 시즌(Back to School season)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백투스쿨 쇼핑이다. 이는 각종 학용품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류 나 신발, 가방 및 런치박스에 이르는 소소한 것들부터 대학에 재학하는 아이들이라면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장만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름방학의 막바지에는 각 주마다 백투스쿨 택스 프리(tax free) 쇼핑기간이 있고, 백투스쿨 세일들이 다양한 상점이나 쇼핑물(shopping mall)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각종 필요한 용품들을 장만하는 것도 요즘 같은 경제시기에 지혜로운 쇼핑법이다.

둘째,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반드시

때문에 반드시 이를 준비해준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길러주자. 여름 내내 학교와 같이 규칙적인 스케줄과 학습 환경에서 공부해 지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막상 개학 이후 학교에 돌아갔을 때, 이에 적응하기위해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방학의 후반기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독서하는 시간을 갖거나 각종 활동을 진행하게 해주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또 잠자리에 들도록 미리 준비를 해준다.

특히 여름방학동안에 늦잠을 잤던 아이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미리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넷째, 주변 정리 능력(organizing skills)을 길러주자. 주변 정리 능력이야말로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학교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로 하루 생활일과 편성하기에서 나아가 스스로의 연력과 학년에 적합한 각 학년별 학습 진도 및 학습목표 정하기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이러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반드시 내 아이가 새로 시작하는 학년에서는 어떠한 기능과 학업능력이 기대되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어떠한 수준으로 요구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이들의 치과 방문 및 각종 의료진료 등을 가능하면 모두 개학 전에 모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알려야 할 경우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이나 의료노트를 학교의 오피스에 알려주는데 이때, 매년 제출하는 이머전시 카드(emergency card)와 더불어 첨부하여 주는 것이 좋다. 이처럼 부모들의 지혜로운 지도와 준비가 아이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방학기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백투스쿨 시즌'이 되도록 한다.

결론으로, 개학을 앞둔 것은 '학

대처가 자녀들의 수월한 학교생활을 이끌 수 있다. 크리스천 가정일 수록, 같은 울타리에 사는 가족끼리, '백투스쿨' 진동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먼저 아이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공부의 리듬을 찾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새 학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새 학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목록화하는 동시에 개학 후에 신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개학 준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긴 여름 방학에서 느슨해진 생활습관과 불규칙적인 스케줄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가는 '백투스쿨 시즌'에서는 가족들의 기도와 대화 그리고 작은 실천들로 희망찬 한 학기를 시작할 수가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665-0009(대포)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포)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포)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 수시 입학 가능
-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 소속감 높일 때, 교회는 성장한다!

## 패스터스닷컴, 새들백교회 "B.E.L.O.N.G" 전략 소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소속"(belong)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런 욕구는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예배와 같은 대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원하는 소

속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새들백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소속되다'라는 뜻을 가진 영문자 belong의 첫 글자를 딴 "B.E.L.O.N.G." 전략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새들백교회에서는 이 전략을 통해 새롭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그들의 집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예수를 따르는 신자가 되게 한다(BE-COME a believer and follower of Jesus Christ).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속감을 갖도록 돕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었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자료와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받아들이도록 한다(EMBRACE a life of purpose).

이 부분은 새들백교회의 교인이 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새들백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양육과정"을 통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 가르친다. 이 양육과정은 성경이 말하는 다섯 가지 목적에 기반 한 것으로, 매달 네 번, 네 시간씩 진행된다. 이 양육과정의 시작인 101반에서는 새로 온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등록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



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섬김을 통해 그들은 진정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다. 새들백교회에서는 새신자들에게 사

영적인 다음 단계를 통해 성장하도록 한다(GROW through spiritual next steps). 새들백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인 한 가족

## BECOME, EMBRACE, LIVE, OFFER, NURTURE, GROW 예수님 따르는 신자되기, 소그룹, 나눔 관계형성, 영적 성장

를 제공한다.

소그룹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LIVE life together in the context of a small group)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깊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사역이다. 새들백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그룹에 헌신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드리도록 한다(OFFER their time and resource through Saddleback).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다. 결코 이 부분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섬김의 기

역의 기회들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물론 이들 사역들은 영적 훈련이나 멤버십 훈련과정이 없이도 가능한 사역들이다. 예를 들어, 교통봉사나 안내, 베이비 케어, 단순 사무 업무 등을 말한다.

믿음을 나눔으로 관계를 키우도록 한다(NURTURE relationships by sharing their faith in Christ).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전도자들이다. 이는 새로운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들백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전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새들백교회에는 P.E.A.C.E.사역이라고 부르는 사역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등과 함께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훈련시킨다.

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지속적인 소그룹 모임 참여 △영적 훈련 과정 참여 △인터넷을 통한 교육 과정 참여 △개인적인 학습 △수양회

결론으로, 새들백교회의 소속(BELONG)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B.E.L.O.N.G."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됨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든지,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목회전략이 될 수 있다.

## 인간생명의 끝,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1면에서 계속)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설령 죽음을 가져오는 유전자를 세포에 지니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죽을 수 없도록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아무런 자국도 받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두근거림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인 까닭에 장래에 생명공학이 탄생시킬 불멸의 인간 역시 유토피아적 삶을 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스 요나스는 생명공학을 인류의 미래로 끌고 가는 거대한 도박(실험)이라고 말한다. 이 실험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라도 용납될 수 없다. 사소한 실험에서는 수많은 실패가 허용될 수 있다. 그 실패가 인류의 운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운명이 걸린 실험에서는 단 한차례의 실수라도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성공 가능성이 99.9퍼센트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0.1퍼센트라고 해도 실험은 지지돼야 한다. 실패로 인해 대재앙이 도래할 가능성이 연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거대한 실험을 즐기는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돌리고 만다.



주류교단들이 있다. 루터교 신학자인 폴 넬슨(P. Nelson)은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인간의 노화를 방지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치료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다른 주류교단 역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이를 허용할 것

생명공학자들은 생명공학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0.1퍼센트의 실수는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무시하면서 실험의 당위성을 옹호한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과학의 순수성이나 중립성을 내세우거나, 과학 발전의 엄청난 함의에 무지한 일반인에 불만을 갖는다.

그러나 호프만 같은 다소 비판적인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보다 철저히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창조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오용되는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새로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오용의 가능성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예컨대 화학자들이나 산업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또는 해가 없다고 사용한 화학물질들 중 상당수가 호르몬 유사물질이고 이것들이 동물들의 내분비계를 혼란시킴으로써 현실을 짊어볼 수 있다. DDT, 디이옥신, 에스트로젠 유사물질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동물들의

호르몬 분비체계를 어떻게 교란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에 책임져야 할 과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는 이러한 급진적 생명 연장 움직임에 대해 분명하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과 이에 따른 죽음을 반드시 천명해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낙인찍혔다. 에덴동산에서의 추방과 죽음은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하게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명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적 가르침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낙태나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보이는 주류교단들이 있다. 루터교 신학자인 폴 넬슨(P. Nelson)은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인간의 노화를 방지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치료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다른 주류교단 역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한다.

현재까지 남침례교단만이 강력하게 "인간의 정해진 수명보다 더 오래 살려는 노력"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복음주의 리더들 역시 인간 수명 연장 치료에 인간복제나 줄기세포 실험을 통한 의학적 대체물 사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론으로, 듀크 대학의 저명한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저(Stanley Hauerwas) 교수의 예리한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죽음이라는 확실성이 삶을 보다 충만하게 한다"고 말한다. 죽음이 없다면,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한계가 분명히 그려진 삶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일진대, 불사의 희망으로 한계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진정한 사랑을 펼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은 대신 사람이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 모두가 사라지는 그러한 유토피아에서 과연 오래 사는 것으로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오래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맛보는 것이 더욱 감미롭지 않을까?

# 담임 목사 청빙

랄리한인장로교회는 400명 이상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담임목사를 찾습니다. 39년의 역사를 가진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체 성전과 교육관이 있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 Raleigh, North Carolina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자격

- 미국 이민복회경력 5년 이상 되신분
- 정규 신학 대학원 (M.Div)을 졸업하신 분
- 이중언어 (Korean and English)가 가능하신 분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인 미국체류가 가능하신 분
- 미국장로교 (PCUSA) 교단에 소속되어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제출 서류

- Personal Information Form (PCUSA에 속한 분들 한에서)
- 이력서 (한글 및 영문) Immigration/Citizenship Status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가족소개서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 고백서
- 최근 6개월 설교CD, DVD, 혹은 MP3 2편

### 문의 및 서류제출

정 열 장로 (919)274-1690(Cell) / Yeup Chong Chai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Address:7712 Hilburn Drive Raleigh, NC 27613  
Ychong1@gmail.com

### 제출형식

설교동영상 CD, DVD 등은 우편 혹은 URL link로 제출해 주시고 이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전자 file로 제출하시되 우편송부도 가능하십니다.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대상자에게는 추가 서류나 Referenc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10/15/2013

## 랄리 한인 장로 교회 (DuRaleigh Presbyterian Church)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orth Carolina 27612 / 919-787-4673, www.duraleigh.org

## 2013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12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여야 함.

### 선발인원 12명: 각\$1,500

###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 (2페이지 이하)
3.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4. 성적 증명서

### 응모마감

2013년 10월 15일

### 수여자 발표

2013년 12월 1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www.NLChicago.org  
NewLife@NLChicago.org  
T. 847-359-5200 F. 847-359-8409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나누는 기쁨

LA한인타운에서 1시간만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선배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배는 해마다 텃밭을 가꾸어 교인들은 물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곤 합니다. 상추, 가지, 고추, 호박 등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을 느

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그것이 부러워 저와 아내도 마당에 열매를 맺을 만한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마당을 고르고 묘목을 가져다가 심다보니 옛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전라도에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일입니다. 후원을 해주

겠다는 든든한 후원자도 있어 그 후원자의 고향인 전라도로 개척을 갔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그런 대로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얻고 사택도 세를 얻어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고 열심히 목회에 정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원자가 몇 달 동안은 우체국을 통해 후원금을 보내주더니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서울에 있는 후원자를 찾아갔습니다. 후원자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내 시장 한 구석에 조그만한 가게를 얻어 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 속에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앞전데랴친다는 격으로 교회건물 주인에게서 세를 올려야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 다. 그 금액으로는 시내에 예배를 드릴만한 장소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시내에서 돌아왔은 작은 마을에 갔을 때 부동산하시는 분이 한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태리식 지붕에 방이 3개 있고 넓은 다락방과 넓은 마당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경기도로 발령이 났다면서 집을 내놓고 학교사택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서 하루속히 이사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이사를 한 후 몇 날이 안 되어 주인 선생님께서 그 집을 사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전세금은 지불되었으니 나머지 잔금은 차차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 다. 심방을 가려니 동네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땅을 놀리면 안되는데..." 문득 뒷마당이 생각났습니 다. 앞마당에는 예배실을 꾸렸지만 뒷마당을 생각하니 풀이 가득자라 있던 것이 떠올랐습니 다. 아내와 나는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을 놀

리면 동네사람들이 욕을 할 터이니 뭐라도 심기로 하자는 것에 의견치를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밭을 꾸미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풀을 뽑고 흙을 뒤집어서 돌을 골랐습니 다. 허벅이 돼서야 겨우 일이 끝이 났습니 다. 다음 날에는 다른 집 밭으로 견학을 갔습니 다. 다른 집 밭은 평평하지 않고 약간 턱을 만들어 그곳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면 고이게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땅에 골을 만들었습니다. 줄을 맞추어 반듯하게 턱을 만들고 보니 이제는 채소를 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날이 되어 시장에 나갔습니 다. 아무래도 씨를 심어서 기르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 다. 그러다가 싱싱한 쪽파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거 심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내와 의견이 통하

여 쪽파를 샀습니 다. 우리 둘 그 누구도 쪽파를 심으면 대파가 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 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쪽파를 줄맞추어 심었습니다. 마음이 흐트렷했습니다. 파란 밭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밭을 둘러보니 역시 쪽파 심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오후 심방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쪽파는 마치 파김치처럼 축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심한 우리의 행동에 옆집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감히 텃밭을 가꾸려는 생각을 버리고 살았는데 과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상이 풍부해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힘든 이민자의 생활 속에 고향의 향수가 묻어나는 먹거리를 나누는 인정 넘치는 삶을 꿈꾸며 과일나무를 심어 봅니다.

# 푸 / 른 / 초 / 장

**황영진 목사**

(선한목자교회)



얼마 전 귀순한 북한병사가 조사를 받던 중 휴전선 철책선을 뚫고 넘어온 사실이 확인되어 보초를 썼던 사병 뿐 아니라 해당 부대의 상급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교로 임관되어 휴전선 최전방 철책선경계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도 저희 부대 우측에 위치한 사단 철책선 경계부대 소대막사에 철책을 뚫고 무장공비가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소대원 전체를 몰살시킨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말단병사지만 경계임무를 맡은 보초가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될 때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보초병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군인도 아니요, 휘하에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시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혼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시대입니다. 종말의 징조

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교만과 독선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렘6:11-17). 말씀이 파수꾼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째,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일하게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요20:21).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유의 주재시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 다.

셋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하

물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상처입은 자들,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회복의 목회적 사명과 마지막 때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과 주의를 극대화 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거짓 이단의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과 방종, 거짓과 교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경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고를 듣습니 다. 저도 최근에 담당의사로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지만, 그 죽음을 피 값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한 파수꾼(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경고했지만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복음전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전도 사명자'입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되" 하라.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에게 경고하여 깨우치지 아니하면 결국

#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 33:1-9)

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다 했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신자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배우려하지 않고,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면 성내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 담임 목사 청빙

보스턴 근교에 창립 11년 된 (장로교 배경을 가진)독립교회로, 성도들이 형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힘쓰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민 가정들로 모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 1. 지원 자격**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분
  - 목사 안수 후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한 분
  -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 분
- 2. 제출 서류**
  - 자필 이력서
  - 자기 소개서(성장 배경, 가족 소개, 신앙관, 목회 간증 등)
  - 목회 계획서(목회 동기,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등)
  - 최근 설교 동영상(CD, DVD, MP3) 2편
  - 추천서 3인(각 추천인 연락처 명기)
  - 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 3. 제출처** MILAL KOREAN CHURCH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www.milal-church.org
- 4. 제출 기한** 2013년 9월 21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뚜렷한 목회 철학과 교회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차세대 이민 목회에 관심이 많으신 목회자를 원합니다.

**밀알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장

##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 강의 USB(MP3) 발매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중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민형, 김해철 목사로서 강의의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뉴스의 내용은 날씨와 기후에 대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세계적인 폭염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할뻔하는 생활을 더 할뻔하게 한다.

지난겨울에는 전세계적으로 살을 에이는 겨울 폭풍과 한파가 일했다. 그런데 여름에 되니 폭염이 세계를 뒤덮는다. 폭염이 알래스카부터 북반부를 덮고, 미국의 남서부를 강타했다. 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폭염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보였다. 밤에도 더운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다. 때 아닌 폭우로 인한 홍수가 캐나다의 알버타와 유럽과 중국과 인도에서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 갔다. 전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기록도 날마다 갱신되고 있다.

한반도의 바다에 열대야가 나타

고 있다.

기상전문가인 Jeff Masters는 “내가 기상학자로 30년 동안 일했지만 지난 몇년과 같은 제트 스트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제 이상기후가 어느 한 계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계절마다 이상기후를 경험한다. 그리고 각 종류마다 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상기후들의 종류들은 모두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상기후는 더 이상기후가 아니다. 이제 이상기후를 정상기후로 보아야 하는 이상한 시대이다.

몇주 전에 미국을 덮친 폭염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와, 아니 북반부 전역에서 일어나는 폭염도 신기록을 수립했다.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는 보통 60도인데 80도를 넘었다고 한다. 불과

는 “폭염은 현재로서도 이미 끔찍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욱 자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2009년도 지급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21세기 지구 곳곳에서 곤충들이 급증해서 인류의 식량을 먹어 치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가상시나리오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검증된 예측이다. 밤에도 더운 열대야가 계속되면 곤충의 번식이 더 증가된다. 급격히 늘어난 곤충들이 인간들의 농작물을 무차별적으로 먹어버리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세계적인 실제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페스트가 다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비록이나 쥐가 옮기는 전염병인 페스트(흑사병)로 유럽 인구의 3분의1이 희생됐다. 그런데 페스트는 최근 인도, 중국, 아프리카에서 또 다시 번져 세계보건기구(WHO)는 페스트를 “다시 창궐하는 질병”으로 지정했다.

과학자들의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플로리

다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와 자연현상들을 연관지으신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겠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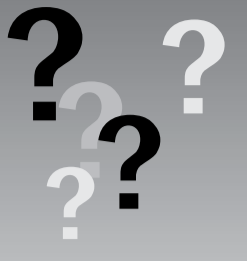
기근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기상상태 중에 하나이다. 불순종할 때 내리는 재앙 중 하나가 가뭄이다(신28:23-24; 대하7:13-14; 학1:11). 사나운 폭풍과 홍수와 해일(출9:18,25; 수10:11; 겔13:13). 요나가 여호와와 다투는 때에 도망할 때에도 바람과 폭풍을 보내시기도 잠잠하게 하신다(욘1:4). 예수님도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막4:39). 하나님은 때로는 흑암과 광명을 사용하신다(출10:21-22; 겔30:3; 32:8). 눅21:25절의 일월성신의 징조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

가뭄과 폭염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사13:3-4; 신 28:23-24; 시14:7). 또한 폭염은 역시 예고되어 있다. 넷째 대접을 쏟을 때에 해가 변한다. 불로 사람을 태우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계16:8-9). 어떤 사람은 태양의 자기장의 변화로, 혹은 태양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해석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은 가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오렌지카운티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여직사입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학력도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했습니다. 결혼하여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스포츠비즈니스를 한 두 번하면서 실패하고 나서 남편은 자신감을 잃고 패배의식으로 늘 자책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플라센티아에서 임 집사

**A:** LA 다저스는 시즌 초반에 주축선수들이 줄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적이 내셔널 리그 꼴찌여서 돈 매팅리 감독은 구단에 의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중간에 해고될 뻔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부상선수들이 복귀하면서 타선이 무섭게 폭발하면서 연승을 계속하여 꼴찌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앞으로 월드시리즈에 우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고 1순위였던 매팅리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 이름이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초반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입니다. 초반의 부진으로 말바닥까지 인기가 떨어졌던 다저스의 돈 매팅리

###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장점 살려보도록

감독도 지금은 인생 역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사님의 남편도 재기해야 합니다.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합니다. 처음은 보잘 것 없어도 돈 매팅리 감독처럼 남편도 마지막에 크게 웃는 인생 역전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잠재력과 감정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과 감정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정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너무 약점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잘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즐겨워서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해도 힘들지 않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가지고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의 강점은 ‘빨리 빨리’와 사치성입니다. 이것은 약점이지만 역발상으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 빨리하고 무엇을 하면 명품이나 새로운 것을 선호합니다. 한국선교사가 왜 세계에 나가 다른 나라선교사보다 많은 열매 맺는가? 빨리 빨리라는 한국인의 특징이 단시간 내에 다른 나라 선교사가 10년에 할 것은 1-2년에 해지웁니다.

21세기는 인터넷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제일 잘하고 인터넷 속도도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휴대폰 산업도 삼성이나 LG가 판을 잡니다. 왜 한국의 휴대폰이 세계최고가 되었을까요? 빨리빨리 속도를 좋아하고 사치성 때문입니다. 미국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휴대폰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신제품만 나오면 금세 같이 치웁니다. 유행에 민감합니다. 멀쩡해도 바꿉니다. 이런 사치성이 세계 최고의 휴대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치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끝없는 사치성으로 세계최고의 사치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치, 프라다, 불가리, 아르마니 등등 그러한 사치성이 그 나라의 최고의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잘하는 장점을 살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남편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전 세계적인 폭염과 성경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나더니 이제해는 해마다 적조현상이 기승을 부린다. 금년에는 홍수와 일조량의 증가로 바다물의 온도상승으로 적조현상이 일찍 나타나면서 인공 양육하던 어패류들이 모조리 죽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기후로 인한 재난이다. 갈수록 더 심해진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세계의 jet stream이 지금까지와는 보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대기권 상층에 흐르는 바람의 강도의 변화가 2006년부터 일어난 이상기후의 주범이라 한다. 작년의 전세계적인 폭설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하는 폭염도 바람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 제트 스트림이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패턴처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5월에 폭설로 인명피해를 내는 하버 작년 11월에는 말로만 들던 슈퍼 스톰 샌디를 경험했다.

전문가들에게는 기상 혹은 날씨 weather와 기후climate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기간이다. 날씨 weather는 짧은 며칠 동안의 기상 변화를 말하고, 기후climate는 오랜 세월 동안의 10년 혹은 그 이상한 세기의 변화를 말한다. 성경은 주로 짧은 기간의 변화를 말하는 날씨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

한달 전에는 눈이 내렸는데 바다 해수욕을 할 정도였다. 폭염이 미국을 덮치던 그 한 주간 동안에도 미전역의 1천11개 기상관측소에서 최고 낮기온 기록이 깨졌다. 지난 달 26일에는 하루 동안 251개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종전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유타에서도 때아닌 처음 경험하는 문순형 폭우의 계절을 맞았다.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콜로라도 주의 로키산맥 일부를 포함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수 십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날씨의 패턴은 미국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무더위는 곤충의 대량 번식을 만든다. 뉴욕 도심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해 번식력이 왕성한 벌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벌떼의 습격을 당하는 일도 생겼다. 그렇지만 벌들이 해마다 20-30% 줄어드는데 남미 로부터 올라온 벌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다른 토종벌들을 멸종시킨다. 이로 인해 양봉업계가 문을 닫고 있다. 만약 벌들의 멸종된다면 생태계에는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의 기후과학자인 앤드루 위버 박사

다 주 어류 및 야생생물보존위원회가 주최한 기후변화회의에 세계적인 기후변화연구학자들과 야생동물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기후변화에 긴급히 행동을 취해 망가진 생태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까지 전세계 생물종 가운데 3분의1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디서 많이 들던 말 같지 않은가?

2007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의 기후전망보고서를 집필한 진 브레넬 박사에 의하면 많은 동식물들이 기후에 의존해 서식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죽거나 더 나은 서식지를 위해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기후는 동식물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죽음의 덫이다.

기후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후와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나쁜 기후들, 홍수, 기근, 가뭄, 토네이도, 지진, 허리케인, 쓰나미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성경은 미래의 기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공관복음에

몸과 육환, 흑사 같은 이상기온으로 세계 곳곳에 기근이 발생할다. 예수그리스도는 이것을 ‘재난의 시작’(마24:8)이라고 하셨다. 재난을 영어성경에서 찾아보면 산고birth pains로 번역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지구가 산고를, 아니 많이 양보해도 산고의 예비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큰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창3:16).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산고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기 출생의 기쁨과 감사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겪는 산고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겪는 해산의 수고인 것 같다.

왜 이런 산고를 미리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신다. 우리는 전세계적인 폭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On Campus Courses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기 나라 사람의 염려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중국 기 나라에 "만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근심에 잠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가 근심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타이덜했습니다. "여보게 하늘은 공기가 쌓여 이뤄진 것으로 공기가 없는 곳이란 없네. 우리가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하늘 속에서 하는 일이니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하늘이 정말 공기로 쌓여 된 것이라면 해나 달, 별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해와 달과 별도 역시 쌓인 공기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다칠 염려는 없네." "그럼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땅이란 흙이 쌓여서 이뤄진 것일 뿐이야. 사방은 어디에나 흙으로 짝 차 있어. 아무리 뛰어도 우리는 언제나 흙 위에 있잖은가. 그러니 땅이 꺼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상은 '쓸데없는 근심'을 뜻하

는 '기우'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대하 내용이 좀 어설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대인에게 교훈을 던져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날까봐 운전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현상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고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운전을 안 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달려와서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를 당한 이들은 기

관사가 운전하는 전동차 속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은 염려한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삶에 유익합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기독교회 지도자 사무엘 램 목사 별세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사무엘 램(중국명 린 신자오·사진) 목사가 지난 3일 별세했다고 오픈도어 선교회 미국지부가 지난 6일 발표했다. 향년 88세.



램 목사는 중국의 종교 탄압으로 20년간 옥고를 치른 인물로 수백만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돼 왔다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했다. 마카오 인근 산악지대에서 목회를 하던 침례교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램 목사는 마오쩌둥이 집권한 뒤에도 삼자교회와 통합되길 거부해 1955년 수감됐다. 중국 정부가 삼자교회를 통해 예수 재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고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전도하는 것도 막았다. 그러나 램 목사는 노동교화소에 갇혀 석탄을 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말씀을 전했다.

석방된 뒤 1979년 광저우에 가정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는 매주 4000여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여전히 중국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정부도 교회 활동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간의 수감 경험은 램 목사의 설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는 탄압을 받을수록 교회가 더 성장했다고 항상 강조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교회 성장은 외형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램 목사는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면서 "말의 승리와 음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고 내게 고통을 주는 이들과도 대적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우리는 지난 30년간 램 목사를 통해 20만명의 중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며 "그의 소전은 중국 선교에 적지 않은 손실"이라고 애도했다.

이집트 교회에 총 난사... 주일학교 아동 숨져

이집트의 교회에 괴한들이 마구 총을 쏘아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오던 열 살 소녀가 사망했다고 미드이스트 크리스천뉴스가 7일 보도했다. 지난 4일 카이로 근교 아인



샨스의 한 복음주의 교회에 수염을 기른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다. 이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시민들을 향해 마구 총을 쏘고는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 제시 파울리스 이사(10)양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총에 맞아 숨졌고 수십 명의 기독교인이 다쳤다. 현장에 목격한 이들은 총기 난사한 괴한들이 쿠데타로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슬림들이라고 전했다.

이사는 이 교회 목사 나스랄라 자카리아의 조카다. 자카리아 목사는 "이집트 전역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이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군부의 쿠데타로 물러난 뒤 이집트 전역에서는 격렬한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무르시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교회를 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 주인인 상점과 기독교인이 사는 집의 벽에 십자가 모양을 그려 공포감을 주고 있다. 콥트 교회의 타와드로스2세 대주교는 주교관을 벗어나 피신했고, 콥트 성직자들이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북부 소하 지역의 성조지 교회에서는 알카에다 깃발을 든 시위대가 교회를 둘러싸고 건물을 봉쇄하기도 했다.

뉴욕의 게이트스톤 연구소 레이몬드 이브라힘 연구원은 "지난달 쿠데타 직후 이집트 알카에다 지도자인 아이만 자와히리가 '콥트 기독교인들이 이집트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한 뒤부터 기독교인이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무슬림형제단의 지도자인 셰이크 유지프 알카라라위도 '콥트 기독교인들이 무고한 무슬림을 죽이고 있으니 이들을 처단하라'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미 의원들 "동성애자 헌혈 금지 폐지"

미국 상·하원의원 82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성애자(게이)의 헌혈을 금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혈액 기증 대상자에서 동성애자를 제외한 헌혈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데미 블드윈(민주·위스콘신), 마이크 엔지(공화·와이오밍),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의원 등 상원의원 18명과 하원의원 64명이 서한에 서명했다. 엔지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30여년 전부터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됐다"며 "혈액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동성애자의 헌혈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미국 혈액은행도 동성애자 헌혈금지정책이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심각한 혈액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헌혈 정책은 건강하고 자발적인 혈액 기증자를 거부하는 것이며 성적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우루과이, 동성혼 허용법 발표

우루과이에서 5일부터 동성결혼 허용법령이 발효된데 맞춰 첫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 우루과이 언론은 14번째 부부 관계를 유지해온 남성 동성애자 세르지오 미란다와 로드리고 보르다가 이날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미란다는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동적이면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날"이라며 "우루과이는 동성애를 여전히 차별하는 국가들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루과이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초 동성결혼 허용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5월 3일 법안에 서명했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이날 공식 법령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아르헨티나(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

중남미에서는 최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브라질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문제에 유화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이 가속할 전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가는 항공기에서 "만일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추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동성애 행

위 자체를 이유로 동성애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가톨릭교회가 동성애 행위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11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등기소에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발효됐다.

중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를 가진 칠레에서도 동성애 권리 인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수도 멕시코시티와 남부 키타나로오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콜리마 주도 지난달 말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북부 코아우일라 주도 동성결혼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두보이스가 본 오바마의 신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한다. 언제 어디서든 시간을 날 때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구약성경의 읊가를 즐겨 읽는다.



백악관의 종교사회국장으로서 올해 초까지 4년간 근무한 조슈아 두보이스 목사는 지난 2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을 설명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바마 대통령에게 성경말씀을 전했다. 대통령은 그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할 때는 조엘 헌터, TD 제이크 같은 목회자를 숙소로 부르기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읊가를 읽으며 그가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깊이 묵상했다"고 전한 두보이스 목사는 "또 예언서, 특히 이사야서를 깊이 읽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C.S. 루이스, 하워드 서먼 같은 기독교 작가와 신학자들의 글도 대통령이 즐겨 읽었다"고 밝혔다. 두보이스 목사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나라를 섬길 때도 오바마는 신앙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며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순절교회 소속인 두보이스 목사는 26살에 백악관 국장으로 임성, 최연소 참모로 오바마 정부와 종교단체, 특히 지역교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백악관 참모 중 유일한 목회자여서 '대통령의 목사'로 불렸다. 오바마는 부친의 고향이 케냐이고 이름의 가운데에 '후세인'이라는 이슬람식 명칭이 들어가 무슬림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된 장학금 사역에 많은 교회와 업체와 개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수여식을 하게 됩니다. 모금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여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8월 18일 오후 5시
장소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전화번호 : (323) 913-4499 / www.lagfc.com



남가주교회에서 받은 장학금 총 \$41,700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Los Angeles area scholarship fund, totaling \$41,700.

O.C.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 총 \$40,000

Table listing donors and amounts for the Orange County area scholarship fund, totaling \$40,000.

후원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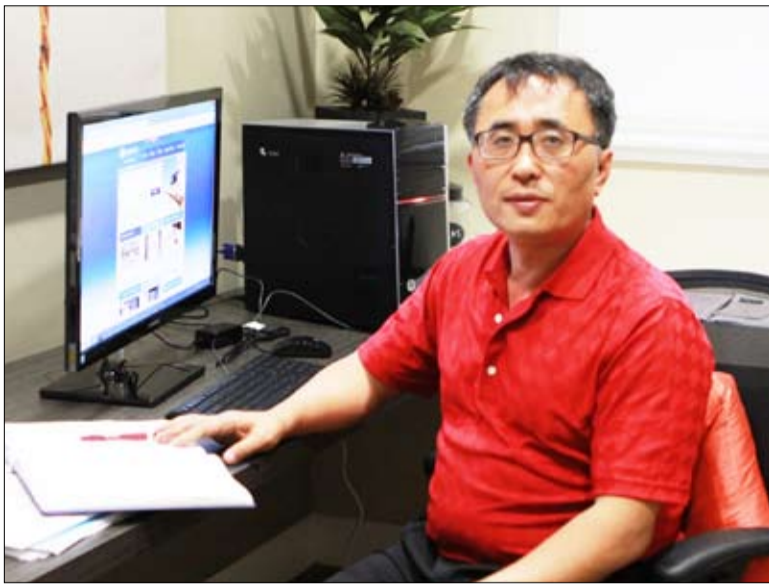


인/터/뷰 남가주청년연합사역 14년 이끈 더글러스김 HYM대표

9월 21-22일 제29회 청년연합집회 준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 다한다”

남가주 기독교청년들의 연합을 통해 각 교회의 청년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HYM(남가주청년연합회)이 개최하는 제29회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남가주 동신교회(손병렬 목사)에서 개최된다. 1999년 당시 베델한인교회 청년부회장으로 봉사하던 더글러스김 대표는 “주변교회와 연합해 집회를 해보자”는 청년부 지도 목회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청년연합집회를 기획하게 된 것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게 됐다”고 회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4년간 이어올 수 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초창기 HYM 사역을 했을 때는 청년연합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어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곳이 HYM 외에는 한곳도 없게 됐습니다. 많은 청년연합단체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 서글퍼집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HYM이 14년을 지나 15년을 향

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HYM이 내 걸었던 ‘순수한 기독교청년들의 모임’이라는 정신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된 즉, ‘연합’에 있었다고 김 대표는 밝히며 “사역을 하면서 다가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내 교회, 내 사역만을 생각하는듯해요. 자신들이 속

한 공동체의 부흥성장만을 추구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웃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 등에는 관심자체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년연합사역 10년을 돌아볼 때 과거와 현재의 남가주의 청년들에게 김 대표는 “과거에 비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청년들

이 많지 않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연합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려는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넘친다”고 말했다. 초교파적으로 청년연합사역을 하는 단체가 HYM 외에 전무하게 된 이유, 즉 HYM만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역이 가능한 것은 다른 단체는 대표가 목회자인 반면 더글러스김 대표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집사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적으로 동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여권을 비롯한 차세대들을 키우는 자라도 그렇지만 HYM이 10년 넘게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연합사역이란

며, 어떤 사역이던지 그 사역에 대해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돕기보다는 라이벌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만약 김 대표 자신도 목회자의 길로 갔더라면 HYM사역이 위축되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루덴셜(Prudential California Realty) 브레아 지점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더글러스김 대표는 “청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많은 에이전트들이 주택매매가 되지 않아 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꾸준히 집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김 대표는 3개월 만에 그가 일하던 퍼스트팀에서 탐에이전트가 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수월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팔거나 사는 일이 마무리 될 때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럴 때 저는 내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며 내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 볼 때 하나님께서 HYM사역을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사야서 6장8절을 근거로 1999년에 결성된 HYM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크리스천들은 지체로서 한 몸이기에 연합을 통해 주안에서 하나가 되며, 집회를 통해 힘을 얻은 청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청년공동체를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한다. 특별히 볼과 가을 정기집회 외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LA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해 집회와 남가주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집회 통해 힘 얻어 지 교회에서 청년공동체 세우도록

것이 특정교회의 전유물이 아닌 만민 보다 많은 교회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대표로 있으면 일단은 단체의 성격이 아닌 해당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된 교회의 전문사역이라 여기는 듯합니다.” 김 대표는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목회자가 의외로 적으

2006년에 현재 근무 중인 프루덴셜로 스카우트된 그는 현재 지속적으로 주택판매를 하고 있다. 그가 일하고 있는 풀러턴을 비롯한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전트로 평평이 나왔다. 고객들에게 내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고 말하는 더글러스김 대표, 그가 자신의 일에

▲ HYM사역에 대한 문의는 (714)393-5135 혹은 이메일doug-lashym@hotmail.com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칼럼 음악목회 (12)

사랑 속에 감추어진 독약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타락한 음악을 통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매스미디어에 휩싸여 살게 되는데 특히 TV나 라디오 방송을 틀기만 하면 원하던 원치 않던 그 매체를 통해 타락한 음악을 접하게 되고 반복됨에 따라 매우 익숙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소리 자체가 싫어서 음에서 가능한 배음을 많이 빼버리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인간의 강요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날카로운 소리와 계속되는 강한 리듬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정서불

안은 물론 말초신경의 자극으로 성욕과 탐욕 그리고 공격성과 잔악성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의 전술전략입니다. 사탄의 본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아닙니까? 그는 음악에 대하여 인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는 재즈나 록뮤직 뉴에이지 음악 등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음을 빼어버린, 음질이 좋지 않은 음으로 만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마치 신선하고 좋은 음식이 그대로는 맛이 없다고, 이제 보다 새로운 음식 맛을 찾고자 음식을 썩혀서 먹는 것이나 같은

것이며 요즈음 젊은이들의 생활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옷을 사서 그대로 입는 것보다 갖가지 핏자나 거친 시멘트에 마구 문질러 무릎이나 엉덩이에 구멍을 뚫어 입는 것이 새로운 멋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악성을 타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갈수록 이러한 악한 소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돌아가 인내가 없고 이해나 용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배고프면 도적질이라도 해서 먹어야하고 성욕과 탐욕이 팽배해져 강간과 강도질 그리고 보복과 잔악한 살인과 마약과 자살 등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중가요 작사자들의 모임인 ‘노랫말연구회’에서 펴낸 최근의 한 연구논문에서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가 요절했거나 슬픈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1926년 현재 탄에서 연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투신 동반 자살했던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듯 “사(死)의 찬미”를 부르고 죽었으며, 남인수는 62년에 “눈 감아 드리오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41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만영은 “목포의 눈물”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숨져갔으며, 또한 68년 가을 29세에 요절한 차종락은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으며, 신장영으로 세상을 떠난 배호는 “마지막 일세”를 마지막 노래로 남겼습니다. 또 폴수암으로 숨져간 양미란은 “혹집”이라는 노래를 남기고 갔습니다. 100%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대적 우울증에 걸려 있는 작곡자나 가수의 영향으로 따라 부르는 방송청취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자기연민’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세속음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까지 침투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가로채 사탄 자신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랑 속에 감춘 독약처럼 성경구절을 이용한 사탄의 음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례이지만 핑크 플로이드란 그룹의 ‘Animals’(동물들)라는 타이틀이 붙은 음반 속의 ‘Sheep’(양)이란 곡은 첫 소절이 성경구절로 시작되어 자칫하면 기독교적 노래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곡입니다. 그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그가 번뜩이는 칼로 내 영혼을 틀어 놓으시는데/그가 나를 양고기 커튼렛으로 만드시는데.” 정말 소름끼치는 내용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예수)가 나를 고리에 꿰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

으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모독하는 내용을 가진 노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헤비메탈 록그룹 스트라이퍼(Stryper)는 헤비 메탈류의 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록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로고를 보면 이사야53:5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크리스천들의 희망이었으나 그들은 결국 타락하여 사탄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앨범표지는 재물이에 담배로 부러진 십자가를 만들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록그룹 스트라이퍼! 그들은 기독교인의 천사처럼 행동했었으나 결국 록의 분향 사탄의 품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알았고 좋은 성경적 가사도, 크리스천록이라는 명제 하에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가 주는 힘보다도 인간의 본성적 악성 때문에 록음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록’은 ‘록’일 뿐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제2회 LA 기운실 사회봉사상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찾습니다.”

건강한 미주 한인교회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온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LA기운실)에서 ‘제 2회 LA 기운실 사회봉사상’을 공모, 시상합니다. 이 상은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며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리고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 상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사는 이들을 격려하고 한인교회와 사회에 좋은 모범 사례를 알려, 사회봉사의 실천이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 심사기준 :
  - 1) 사업 의지 부분: 사회봉사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 심사
  - 2) 사업 기여도 부분: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력 심사
  - 3) 사업 운영 부분: 운영의 건강성, 합리성, 전문성 심사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lacem.org) 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cem\_la@yahoo.com
- 심사과정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10월 4일 (월) 까지
- 수상자 발표: 10월 7일 (월)
- 시상식 : 10월 17일 (목), LA 기운실 건강교회포럼에서 시상
- 시상품 : 기념 상패와 \$1,000의 시상금 전달

●주관 및 문의: LA 기운실, 213-387-1207 / www.lacem.org / cem\_la@yahoo.com ●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51. 창조론의 기초(2) 모든 탐구의 기초는 성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 안에 있는 나는 누구며 어떤 역사를 거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과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도 우주와 지구의 생명 그리고 모든 것들의 창조자를 더 깊게 알 수가 있다(롬 1:20).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을 알 수는 있다.

### 1. 과학의 한계

기원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들은 실험실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없고,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진화되었는지도 실험할 수 없다. 이런 과거의 일들은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나 진화의 가설들을 검증해 볼 수는 있다. 그 가설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과학적 법칙이나 원리와 일치하는지를 통하여 창조와 진화 모델을 검증해 볼 수는 있다.

과학적인 발견들이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사람을 달에 보내 줄 수는 있지만 과학은 모든 질문들에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대의 물질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과학주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과학이 만능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라는 사실은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며 확인되었다.

### 2. 믿음의 영향

사람들은 기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belief) 혹은 설명(explana-

tion)/전제(pre-supposition)/선입관(worldview)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 믿음이 옳다면 만나게 되는 증거들이 믿음과 잘 맞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믿음과 증거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한 두 개의 증거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해도 다른 많은 증거들은 설명하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 3. 과학자

창조과학자의 입장은 사람의 해석이 성경의 계시와 상충될 때 사람의 해석을 재고해보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에 대한 해석이 성경과 다를 경우 과학자들이 틀렸을 것이라 논리이다. 세상과학자들도 역시 오류가 있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재고해야 한다. 물질만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과학자들이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관찰도 한 일이 없고, 실험도 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주장은 얼마나 오류가 많을 것인가! 계속해서 칼럼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틀렸던 경우들을 보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확인해주고 있는지 그 증거들도 소개하게 될 것이다.

### 4. 과학 이론들

이론과 가설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과학이론(scientific theory)은 과학적인

하는 것이 증거가 되면 그 가설은 이론의 수준으로 승격이 된다. 그렇다고 그 이론이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 이론은 우주의 한 양상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단 한 가지의 실험 결과라도 가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면 그 가설은 틀린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예를 들면, 중력이나 기체는 과학이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중력이론 혹은 기체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진화나 빅뱅은 이론은커녕 과학적인 가설도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가설의 옳고 그름을 실험할 수 없는 과거에 단 한 번 발생했다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진화론이나 빅뱅은 과학적인 가설도 아닌 것이다. 물론 이런 저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론으로 승격시키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다. 창조론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5. 진리를 발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를 알아 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

## 우주 아는데 최고의 도구는 단연 직접계시인 성경 논리적 근거도 제공, 성경 빼면 모든 근거 사라져

**모든 생각의 기초**  
성경에는 영생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과학에 대한 말씀도 역시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바다에서, 혹은 하늘에서 만나는 증거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들은 그 증거들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방법을 통해 확립이 된 것이다. 과학적 가설(scientific hypothesis)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때, 그 미래의 검증결과에 대한 예상을 과학적 가설이라고 말한다. 여러 조건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해본 결과 가설의 예상과 일치

지 도구(tool)들을 주셨다. 어떤 도구는 특정한 분야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는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도구는 다른 종류의 지식을 알아 가는 데 장점이 있다. 숫자와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논리와 수학이란 수단을 사용한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을 알려고 하면 역사책들을 사용할 수 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과학적인 절차들을 밟아 가게 된다.

이 도구들 중에 최고의 도구는 단연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계시이며 분명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학과 수학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어떤 주제는 성경을 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 우주가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들이다. 성경은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작은 그루터기의 인생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그저 자기 배,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남의 약점을 무기로 자기 욕심을 채워 보려다 좌절되니 억울하다. 험기 부리는 하갈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좌절로 억울하다. 난동하며 의의 모습이러곤 찾아볼 길 없어도, 스스로 부른 고통일지라도 아파서 울부짖을 때 찾아와 손잡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자기 눈엔 만나는 모든 일이 억울하고 아플지라도 오직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며,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시지도 않고 어떤 모습에서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주시는 은혜에 가슴이 벅칩니다.

주님은 우리네의 인생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허나 정작 우리 자신은 남의 눈의 티는 너무 크게 보이니 자신의 들보는 보이지 않고 그저 억울한 마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비교하여 상관없는 일에 있지도 않은 자기 의로 이웃을, 주인의 형제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분수를 잊고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기에 목숨을 거는 너무도 아픈 모습에 애통합니다.

형제가 함께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설령 내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를 세워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리도 시리도록 아플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소유된 남겨두신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코 아무리 당연히 보여도 마귀의 질투에도 시기에도, 부추기는 험기 내는 하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마귀의 난무 장으로 내어주지 않으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주께로 돌아와 그의 보호하는 날개 아래 자신을 맡기도록 넘겨져 함겨운 이들이 낭떠러지에서 붙잡으면 살아나는 그 자리에 서있는 작은 그루터기로 족한 인생이 되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함께 해주시는 인제하심이 저의 살아있는 존제의 이유이며 힘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하시니 제게 두려움도 애통도 다 주 안에 은혜로 녹아져 내립니다. 살아있어 숨 쉬며 울고 웃음이 기쁘요. 하갈의 억울하고 비통한 눈물이 철이 들어 드려지는 감사의 눈물의 제사로 드리는 남은 은혜의 날이 되길. 내 앞에 매일 매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는 모든 도구들이 합당한지의 논리적인 근거도 제공하고 있다. 성경을 빼면 모든 근거는 사라지고 만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문제를 다루는데 혹은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데 성경을 빼고 토론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여기에 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중립지역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빼고 토론을 하는 것은 전장에 나가면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주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하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감각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주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롬1:20; 사 40:2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1:16-17).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31일(토)  
9월 2일(월) ~ 1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213)382-1450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 벅스카운티장로교회 제2회 장학금 수여식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장학생들과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가 담임 김풍은 목사.

필라델피아 근교에 위치한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담임 김풍은 목사)는 지난 4일 오후 5시 제 2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해 12월 30일 제 1회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는 필라델피아 뿐 아니라,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총 28명의 학생들(12학년- 대학교 3학년 재학생)에게 수여했다. 수여식 1부는 개회 감사기도, 장학증서

전달식, 김풍은 목사의 격려사, 학생 부모의 소감과 두 학생(남매)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 후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2부에는 본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만찬 등의 순서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벅스카운티장로교회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이 행사를 매년 계속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벅스카운티장로교회)

# 커넬대학 가을학기 1일 세미나

커넬대학교는 가을학기 1일 세미나를 17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갖는다.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크고 작은 가정의 위기를 만나 충격적 경험을 하신 분들을 돕고자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건강한 영성 △의도론 제 상담 △위기가정 상담 등이며 등록비는 20달러(교재 및 간식비 포함). ▲문의: (714)995-9988, 287-2458

# 미 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 영성수련회

미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여교역자회(회장 전은정 목사)가 주최하는 제 6차 영성수련회가 9월 23일(월)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열린다. 장소는 라스베가스순복음교회(담임 강일진 목사)이며 강사는 독일 현지인 선교사 제안순 목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문의: (248)767-1010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 박사원 과 소금과 빛 기독교 상담자 연구회가 공동주관하는 평신도상담훈련교실 교실에서 피시픽아시아 상담센터 상담사 그레이스 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풀러신학교 평신도상담훈련교실

## ‘그리스도인의 분노조절’ 주제로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 박사원 과 소금과 빛 기독교상담자연구회가 공동주관하는 평신도상담훈련 교실이 9월 저녁 7시30분 풀러신학교 페이튼홀에서 열렸다. ‘그리스도인의 분노조절’이라는 주제로 열린 상담훈련교실은 그레이스김

목사(피시픽아시아상담센터 상담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인도했다. 그레이스김 목사는 “이민생활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다. 이민생활의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식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타인과의 다툼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은 특정인들만이 아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화를 내야 하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결 때까지 분한 마음을 갖는다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 등”이라 설명했다. 이번 상담훈련교실은 지난 4월 12일부터 한 달에 두 차례 금요일 저녁에 열려왔으며 23일(금) 헬렌 최 가주공인상담사의 강의를 끝으로 마치게 된다. 강사로는 그레이스김 목사, 권오균 교수, 엄예선 교수가 건강한 사모, 목회자, 목회자 가정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 투고 칼럼



필라 순복음중앙교회 강승호 목사

# “하나님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어소통을 통해 헬로우임을 가지게 했고, 하나님 자신도 인간과의 대화를 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로 ‘나누다’를 의미하여 신이 자신의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는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덕’의 부재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아닌 ‘인사불통’이 되고 있다. 가정도 부부와 자녀간에도 대인 관계에서도 대화가 단절되어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전 세계가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당신과 나 사이에 의사불통이 팽배해 가는,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덕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의사소통은 단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덕이 빠져있는 대화는 차라리 독백이고 불신과 불평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수많은 언어를 사용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주의한 한 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과의 대화를 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로 ‘나누다’를 의미하여 신이 자신의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는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덕’의 부재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아닌 ‘인사불통’이 되고 있다. 가정도 부부와 자녀간에도 대인 관계에서도 대화가 단절되어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전 세계가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당신과 나 사이에 의사불통이 팽배해 가는,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덕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의사소통은 단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덕이 빠져있는 대화는 차라리 독백이고 불신과 불평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루

열 하룻길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의 세월을 보며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후손들만 맡아간 이유도 하나님과의 소통(기도)은 멀리하고 원망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한을 남긴 채 죽어갔다. 오늘의 시대는 위기와 불안과 공포와 불신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구하라 주실 것이며, 알지 못 함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고, 이 세대를 향하여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부르짖으라고 하신다.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5:40 새벽기도회: 오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n.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주일학교: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i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5:4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1:30 (매주, 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b>선한목자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아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2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8-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y.org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any.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mk@gmail.com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8: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cd.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은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디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7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택영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유치) 영아예배: 오전 11: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6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garb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8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ellite.org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b>앵커리지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스얼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9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jospprovision21.org (매주, 주, 4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3:0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어) Tel. (253)635-6207, 531-8424 Fax. (253)6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636-6675, Fax. (253)741-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템피파조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5:30(토) www.kkcc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진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기사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신입생 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목사)가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 △학원: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여교역과가 있으며 입학원서와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명함판 사진 등이 필요하다. 입학전형료는 30달러. 원서접수마감은 9월 6일(금) 오후 6시이며 입학시험은 7일(토) 오전 11시 면접은 오후 2시. 한편 영성훈련이 9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저녁 8시부터 있다. ▲문의: (646)717-2733, (718)463-7163

20기 및 2단계 17기 실버미션스쿨 개강

뉴저지 실버선교회(회장 양춘길 목사, 이사장 박노식 장로)가 주최하는 20기 및 2단계 17기 실버미션스쿨이 개강한다.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저녁식사 7시) 시작하며 장소는 에리자베스교회(담임 소재신 목사). 소정의 입학원서와 등록비는 100달러(부부 150달러). 이번 학기를 마치고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남미국가 중 한 곳으로 단기선교 훈련도 가게 된다. ▲문의: (732)225-7337 총무 이호영 장로, 이메일: silvermarylee@gmail.com

담임목사 청빙

1972년 설립된 아르헨티나중앙교회(KAPC 소속)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부목 경험 5년 이상인 만 40세-50세.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포함), 신앙고백서(A4 2장 이상), 개인 및 가족 소개서, 목회계획서, 학위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최근설교 2편(동영상 1편), 현재 사역교회 주소 1개월분,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주소,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 이상 등을 이메일(chungang.ar@gmail.com)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8월 31일. ▲문의: 0054-11-4921-9395

담임목사 청빙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팔리한인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39년의 역사를 가진 PCUSA 교단 소속. 자격은 미국목회 5년 이상, 정규신학대학원(M. Div) 졸업, 이중언어 가능,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합법적 체류 가능, 교단소속 가입 가능. 제출서류는 PIF(PCUSA 교단 소속자), 이력서, 가족소개서,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최근 6개월 설교CD, DVD, MP3 2편. 마감일은 10월 15일이다. 웹사이트 www.dura-leigh.org ▲문의: (919)787-4673

뉴욕전도대학교 개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학장 최예식 목사)가 9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2013년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장소는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전도대학교는 12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강의하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현장전도를 나간다. 등록금은 100달러(부부 150달러). ▲문의: (718)813-6580, (516)528-9119

분노조절 워크샵

패밀리리치(원정 정성숙 박사)가 주최하는 '분노조절 워크샵'이 8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6회에 걸쳐 열린다. 또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독서클럽(성인)이 열리고 있다. ▲문의: (718)961-0151



이노비가 공연하고 있다.

뉴욕교협 파송 북미원주민 연합선교팀 귀환

미네소타, 위스콘신, 뉴욕 10곳 총 476명 참가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던 북미원주민 연합선교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총6박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뉴욕업스타이트 지역에서 총 476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합선교는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가장 먼저 귀환한 미네소타 1,3팀이 버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참가자들

제26기 목회와 선교위한 컴퓨터 무료강좌 개강

기독교미디어단체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과 KCBN(사장 문석진 목사)이 공동 주관한 제26기 목회와 선교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가 성황리에 개강했다.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KCBN(미주기독교방송)에서 열리는 이번 26기 강좌는 '스마트폰 쉽게 배우기'에 대해서 강의한다. 특히 이번 강좌부터는 참여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갤럭시 S3와 프로젝터를 연결해 큰 화면으로 강의했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화면을 보면서 휴대한 스마트폰을 실습해 효과적인 강의를 받았다. 당초 신청오강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선착순 12명의 수강생들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강생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22명이 참석했다.

첫날 강의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본기능 숙지법, KCBN이나 칼라노트 등 유용한 앱 다운로드 및 사용법, 카메라 사용법 등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강의했다. 문석진 목사는 이번 강좌를 통해 SNS의 대표주자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활용법, 스마트폰에서의 이메일 사용법, GPS사용법, 앱 다운로드 받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씨존)

이노비, 콜럼비아대 아동병원 환자와 가족위한 공연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8일 콜럼비아대 아동병원에서 무료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입원치료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소아 환자에게 흥겨운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고자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KACF(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노비의 공연은 관객들의 컨디션을 세심히 고려해 준비한다는 것이 특징. 이번 음악회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알리던, 라이언킹, 맘마미아 등의 뮤지컬 곡을 관객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한 곡 한 곡 정성을 들여 편곡하여 준비했다. 뉴욕대학(NYU) 뮤지컬 작곡과(Tisch School) 대학원을 졸업한 헬렌 박씨가 음악감독을 맡고, 뉴욕대학 출신으로 브로드웨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4명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키보드, 베이스 기타, 드럼 연주자들이 참여해 신나는 공연을 선보여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기사제공:이노비)

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뉴욕업스타이트 지역에서 총 476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합선교는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뉴욕교협은 올해부터 원주민선교 분과를 조직해 뉴욕일원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북미원주민 선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원주민선교는 뉴저지, 델라웨어, 보스턴, 필라델피아, 스포링필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진행됐다.

올해 방문한 북미원주민 거주 지역은 미네소타 지역 4곳, 위스콘신 지역 5곳, 그리고 뉴욕지역 1곳으로 선교팀은 총 10곳에 거주하는 북미원주민들과 함께 음식과 문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은 올해 처음 문을 열고 선교팀을 환영했고 기존의 지역들은 더욱 큰사랑으로

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뉴욕업스타이트 지역에서 총 476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합선교는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뉴욕교협은 올해부터 원주민선교 분과를 조직해 뉴욕일원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북미원주민 선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원주민선교는 뉴저지, 델라웨어, 보스턴, 필라델피아, 스포링필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진행됐다. 올해 방문한 북미원주민 거주 지역은 미네소타 지역 4곳, 위스콘신 지역 5곳, 그리고 뉴욕지역 1곳으로 선교팀은 총 10곳에 거주하는 북미원주민들과 함께 음식과 문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은 올해 처음 문을 열고 선교팀을 환영했고 기존의 지역들은 더욱 큰사랑으로

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뉴욕업스타이트 지역에서 총 476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합선교는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뉴욕교협은 올해부터 원주민선교 분과를 조직해 뉴욕일원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북미원주민 선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원주민선교는 뉴저지, 델라웨어, 보스턴, 필라델피아, 스포링필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진행됐다. 올해 방문한 북미원주민 거주 지역은 미네소타 지역 4곳, 위스콘신 지역 5곳, 그리고 뉴욕지역 1곳으로 선교팀은 총 10곳에 거주하는 북미원주민들과 함께 음식과 문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 새로운 북미원주민지역은 올해 처음 문을 열고 선교팀을 환영했고 기존의 지역들은 더욱 큰사랑으로



뉴욕원로목사회 8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8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8월 월례예배가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부회장 소의섭 목사의 사회로 이종성 목사의 기도, 사모일동 특별찬양,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종훈 목사의 설교, 임지영 목사의 찬양으로 진행됐다. 예배 후 총무 정익수 목사의 광고에 이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

이후 목사와 회계 박희구 목사의 건 강회복과 한국의 남북회담, 만나교회의 부흥을 위해 통성기도를 드렸다. 김종훈 목사는 아가 2장 9절-13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찬은 김용해 목사 제공으로 산수갑산에서 했다. 한편 9월 월례예배는 뉴욕로즈한인교회(담임 김사무엘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12차 유엔 세계청소년총회 APPA한인청소년대표단 대거 참석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유엔본부에서 모인 '제12차 세계 청소년 유엔 총회'가 8월 7일 첫 날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 총회에는 유엔경제사회 자문회원기구 평화나눔공동체(APPA, 최상진 대표)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78명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4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Table with 3 columns: Item description, Size, Price. Includes items like 3.5cm x 4.5cm, 17cm x 24.5cm, etc.

Table with 2 columns: Item number, Information. Includes fields for church name, address, phone, fax, etc.

\* 위키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우리들을 사랑한 목사' 로 기억되길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담임목사 위임식 성황

나성영락교회가 김경진 담임목사 위임식을 11일 오후4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경진 목사는 "담임목사 위임은 결혼과 같다고 생각한다. 결혼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황홀한 기간이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차이점과 약함을 알고 서로 덮어주며 진정한 사람이 썩듯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허물이 보이고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한다. 아름다운 목회, 행복한 목회를 교우님들과 함께 계속하길 바란다. 먼 훗날 나성영락교회에서 은퇴하고 난후 교우들에게 어떤 목회자

로 기억되어지면 좋을까 생각해봤다. 말씀 잘 전하고 행정 잘하고 지혜로운 목사 등이 있을 것이다. 기도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들을 사랑한 목사였다' 라는 것이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목사, 내 사랑을 최선 다해 말씀으로 증거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KPCA 서노회장 박화균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위임식은 경과보고, 서약, 기도, 공포 및 위임패 증정, 성경 및 헌법 증정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인수 목사(미주장신대 전 총장)가 권면을,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회장)와 길벗 세틸로 LA시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김경진 목사가 시무하던 서울 익수교회

교우들의 축하영상, 브니엘 여성합창단의 특송, 선물증정, 감사, 감사패 증정 등으로 이어졌으며 정해진 목사(KPCA 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코너스톤교회 20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2013'이 세리토스 퍼포밍아트센터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 "상처받은 영혼 변화에 쓰임 받자" 코너스톤교회 20주년 '셀러브레이션 2013' 대성황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교회설립 20주년 기념 찬양콘서트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2013'을 17일 오후6시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화려하게 열었다.

이종용 목사는 "코너스톤교회가 20주년이 됐다. 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150:6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라고 돼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잔치를 벌여야겠다고 결정했다. 1세 1.5세 2세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 이 시대 많은 어려움, 아픔, 그리고 환난이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내 인생을 세부분으로 나눈다면 27세까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시기, 구치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출소 및 도미해 32세까지 거듭난 크리스천의 삶을 살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목사가 된 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 언급하며 "코너스톤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방

한편 임시당회장 박희민 목사의 집례로 열린 1부 예배는 강진용 목사(KPCA 전서노회장)가 기도문, 권영순 권사(제1권사회 회장)가 성경봉독을,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을, 노진걸 목사(KPCA 부총회장)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고전 3:10-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남가주장로성가단이 찬양을 했다.

황하다 코너스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직장생활과 가정 등에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감사하게 된다. 앞으로 코너스톤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코너스톤 교인들이 함께 펼쳤는데, 특별히 스티비 윈더, 휘트니휴스턴과 공연을 했던 론 브라운(색소폰), 데일 크룩스(베이스), 마코도 미야시타(일렉트릭 기타), 레이포드 그리핀(드럼)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드웨인 스미스(베이스), 프랭크 오틀라(타악기), 크리스천 김(피아노), 정한경(키보드)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이종용 담임목사가 예수그리스도로 출연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갯세마네', 가수 시절 불렀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등을 불렀으며 코너스톤교회 프레이즈팀, 성가대, 청년부, 중고등부 성가대 등이 무대에 올라 찬양과 스킷 공연, 바디워십 등을 선보여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제 새생명선교교회 설립7주년감사부흥성회, 강사 정준성 목사

새생명선교교회(담임 김만수 목사)는 정준성 목사(위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를 초청, 설립 7주년 감사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제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부흥성회는 '아버지를 더 알게 하옵소서!(호6:3), '예수님을 더 닮게 하옵소서'(롬8:29-30), '성령님을 더 따르게 하옵소서'(엡5:18)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됐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

# 서부교계 게시판



### 소망소사이어티 제57차 정기교육 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제57차 정기교육 세미나를 19일(월) 오전10시부터 정오까지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시신기증에 대해 하게 되며 마크 부룩스 UC얼바인 시신기증 프로그램 디렉터가 강사로 나선다.

▲문의: (562)944-4580

### 나침반교회 3인3색 콘서트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복음송 가수인 황국명 목사, 손영진, 최명자 사모와 함께 3인3색 콘서트를 30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문의: (562)691-0691

### 허준호 집사 찬양 간증 콘서트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배우 허준호 집사를 초청해 '은혜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찬양과 간증 콘서트를 30일(금) 저녁 7시 30분에 갖는다.

▲문의: (714)446-6200

### LA기윤실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

LA기윤실(공동대표 홍진관, 허성규)은 김종희 뉴스앤조이 대표 초청 좌담회를 23일(금) 오후 7시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205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위해 마련됐다.

▲문의: (213)387-1207, cem\_la@yahoo.com

###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는 임승진 담임목사 취임식과 송정명 원로목사 추대식, 그리고 출판기념 음악회를 25일(주) 오후 3시 개최한다.

▲문의: (213)381-2202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담임목사가 임시당회장 박희민 목사로부터 헌법과 성경책을 전달받은 후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대화법세미나에서 고명희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대화는 생명...양자 간 밸런스 맞춰야" 은혜한인교회 대화법세미나, 강사 고명희 교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주최한 대화법 세미나가 13일 오후7시 본 교회 내에 위치한 웨딩채플에서 개최됐다. 본 교회 총권사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한기홍 목사의 지도로 시작돼 고명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강의로 이어졌다.

고명희 교수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8대2 정도로 부모가 대화를 주도하기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화는 양자 간 밸런스가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대화는 소통이다. 소

통은 숨 쉬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없으면 생명력은 고갈된다"며, "관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밝힌다. 따라서 서로간의 이해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하며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 그대로를 인정해야 하며,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전환해서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자는 대부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었으며 고 교수의 강의에 깊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박준호 기자)



청림 7주년 기념부흥성회에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원내는 강사 정준성목사

된 성회 둘째 날인 토요일 오후 집회에서는 본 교회 환우를 위한 특별 통성기도시간을 갖고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단애 선 정준성 목사는 '성령을 더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 아래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제시하며 "성령님은 교회와 각 성도 안에 계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보증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강조하고 "성령님을 더 따르기 위해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이어가야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속에 찬송과 감사가 이어지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새생명선교교회는 7년 전 현재의 장소에서 김만수 목사가 개척해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있으며 K국교회 돕기를 비롯해 북한과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러시아 등 선교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 The Reformed University USA

## 미주개혁신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징: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월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다니엘처럼 세상유혹서 벗어나는 용기 가져야” 2013 성서한국 전국대회

지난 9일 인터넷에서는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 뒤 ‘대학생 멘토’로 유명한 강연자로 이름을 날리던 올해 28세인 김씨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소식이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그는 ‘성공하고 싶어 저지른 잘못이었다’면서 사과했다. 헛된 성공 신화가 판치는 세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만하다.

같은 날 저녁, 강원도 원주 연세대학교 캠퍼스 강당에서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 청년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날 세계는 힘과 권력의 숭배, 욕망의 과잉충족을 부추기는 ‘신 바벨론 제국’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고수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다니엘

서)’처럼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호의와 특권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거절할 줄 아는 내적 용기를 갖춰야 합니다.”(김희권 숭실대 교수)

“2013 성서한국 전국대회” 주강사로 나선 김 교수의 강의에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숨을 죽였다. 올해로 6회째되는 성서한국 전국대회는 전국의 기독교 청년들과 기독교인사회 단체 회원들이 모여 성경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신앙 의지를 다지고 그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자리다. 20대부터 40-50대 직장인과 목회자 등이 주로 참석하는데, 올해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청년 공동체.’ 행사 사흘째인 이날, 구약의 다니엘서를 주제로 강단에 오른 김 교수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등 나

를 호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일행은 물과 채소만을 먹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 청년에게도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특히 “기독교 청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벨론 제국(세상 문화)이 주는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창조적인 탈출과 분리(사40-48장, 렘46=52장)를 용기 있게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즉 영적인 모집단인 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격려할 때 교회를 향해 내뿜는 세상의 냉소와 야유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아대책과 YMCA생명평화센터 등 사회선교단체 20여곳이 참여하는 ‘사회선교단체박람회’와 강사들이 신앙 및 인생 상담가로 나서 참가자들을 상담해주는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 등도 함께 진행됐다.

## 예장고신 부총회장 후보들 선관위 통해 출마조건 “기독교 정체성 회복에 주력”

“영성 회복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데 힘을 쏟겠습니다.”(기호 1번 신상현 목사)

“영적각성 운동으로 교단의 위상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기호 2번 김철봉 목사)

내달 예정된 제63회 예장고신총회 부총회장 선거 출마자들은 저마다 ‘영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WCC(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신학적 논쟁과 더불어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공세 속에서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교단의 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고신총회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12일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밝힌 출마조건 및 본보 인터뷰에서 교단과 한국교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종교다원주의와 이슬

람의 도전,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성을 통한 기독교의 정체성 강화”라며 “총회 차원의 회개·성령운동, 신앙 양육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목사 역시 “교단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화합은 어렵다”면서 “영성·기독교운동으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 교단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천지 등 이단세력들의 기존교회 침투와 관련, 신 목사는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세미나 등 교육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 프로그램 및 이단전문가 양성을 제안했다.

현재 예장합신 교단과 추진 중인 ‘교단 통합’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 후보는 “쉽지 않

지만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 “교단 내 일부 인사가 아닌, 교단 전체의 합의와 총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장 후보인 주준태 현 부총회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총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총회 특별위원회로 ‘평가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의 사후 평가와 후속 조치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행정 공개와 재정투명 원칙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인 엄송우 장로는 “실효성 있는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신교단은 1780개 교회 46만명의 성도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자립교회는 약 60%에 달한다.

제63회 고신 총회는 ‘복음의 길, 제 3세대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내달 23일부터 나흘간 충남 천안시 삼룡동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다.

## ‘북 북음화’ 힘 합친다 합동·통합·기성 등 17개 교단 19일 조찬모임

북한교회세우기연합(북세연·공동대표 김용실 목사, 김진호 감독)은 19일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북한 북음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합운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임에는 예장 합동, 통합, 기침, 기성 등 17개 교단 총회장과 부총회장, 총무, 대북한관계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북세연에 따르면 이날 모임을 기점으로 교파를 초월한 북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비롯해 경제개발, 사회구원, 북한 복지화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북세연 관계자는 “북한 북음화를 위해 조교파 연합운동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교파와 신학을 초월한 교단, 단

체, 교회, 개인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세연은 2006년 설립돼 6·25전쟁 이전에 존재하던 3000여개의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위해 힘써왔다. 새우리탈북민정착기구와 북한선교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사 배출에 주력했다.

북세연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 운동이 신학적 차이로 연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 한계를 극복해 북한 북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초교파적 연합운동을 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신천지, 핵심문건으로 본 맞춤형 포교 전략...모든 것을 해부한다(1)

[미션라이프] 예장 통합, 합동, 고신, 대신, 기성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포교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자퇴 사직 가출 이혼 등 반사회적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포교 대상 개인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이를 바탕

선 상, 중, 하로 평가한다. 꾸준하게 친분관계를 맺으며 특이사항은 관리표에 별도로 기록한다.

섭외자 관리카드에는 다수의 포교 대상자 중 가능성 있는 사람(섭외자)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고서다. 대상자의 혈액형, 학교, 직장, 교단, 신앙연수, 교회출석 동기, 친인척 목록, 유무, 목회자 및 신앙 멘토와 친분도를 기입한다. 또 교회

(바람잡이) 신상 등 50개의 항목을 살펴본다.

흥미로운 것은 신천지가 교회에 대한 만족도, 불만, 교회에서 받은 상처, 말씀 관심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낮은 교회 만족도를 발미로 복음방으로 유인한다는 예기다. 결혼 임신 해외취업 이민 유

## 신앙부터 인간관계까지... 포교대상자 속속들이 분석

으로 포교에 나서는 등 맞춤형 포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이들의 핵심문건을 바탕으로 펴고 있는 포교 전략을 3회 소개한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신천지 핵심문건 4개(개인전도 관리표, 섭외자 관리카드, 전도요청서, 신앙 관리카드)를 보면 신천지가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보고서를 만드는지 알 수 있다. 4개 문건은 ‘열매선별→인간적 신뢰형성→유형별 상대진단→신앙우위 선전→유형별 맞춤형전략→복음방 등록’이라는 포교전략을 떠받치는 기초 자료다.

신천지 신도들은 다수의 포교대상자를 개인전도 관리표에 올려 놓고 인성과 신앙, 환경에 따라 우

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상처, 교회 밖 성경공부에 대한 경계심, 신앙적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34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다.

전도요청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포교대상자 전도를 위해 해당 지역 신천지 신도에게 전도를 요청하는 문건이다. 성경봉독 횟수, 교통수단, 하루일과, 교회에서 받은 상처, 섭외목사, 선교교사 유형, 당부사항, 신천지 인식여부 등 43개 항목을 빼곡하게 점첨한다.

신앙 관리카드는 복음방 교육을 받기 시작한 잠재적 신자를 관리하기 위한 문건이다. 개인 신상은 물론 자택에서 신천지 신학원까지 소요시간, 학습능력, 인도자(최초 소개자)·복음방 교사·앞사귀

학 입대 이사 시험을 앞둔 사람이나 간병자, 부채가 많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안산 상록교회) 목사는 “신천지 신도들은 지금도 14만 4000명을 채우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전하를 다스린다는 허황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 포교를 하고 있다”면서 “사정 위장을 일삼는 신천지의 거짓말 포교는 결국 개인과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아프간 피랍 6년...해외선교 안전한가

#지난달 라오스로 단기 봉사를 떠난 A씨(25·여)는 현지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발에 염증이 생겼다. 처음엔 단순한 상처인줄 알고 그냥 놔뒀으나 이틀이 지나면서 상처 부위는 점점 커졌고 통증이 심해졌다. A씨는 견뎌보려 했지만 약도 듣지 않는 데다 걷는 것조차 어려워 결국 남은 일정을 포기하

서 이른바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선교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지 문화와 관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도행위를 일삼는다면 각종 질병과 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 없이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9일 한국위기관리재단에 따르

선교로 부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주일 남짓한 활동으로 무슨 선교가 되겠냐는 회의론이 많다.

이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2년간 시행되는 단기선교와는 차별된 용어로 ‘단기선교여행’이나 ‘단기봉사’, ‘비전트립’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선교여행의 패러다임은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 단기선교 가세요? 준비는 길~게

고 돌아와야 했다. A씨는 봉사를 떠나기에 앞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란 테헤란 공항은 지난해 2월 수십명의 한국인으로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청소년 7명을 포함한 총 51명의 한국인이 각각 다른 지방에서 경찰에 체포돼 공항으로 이송된 것이다. 이들 중 37명은 현지 경찰에 불만을 터뜨리며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체포된 것은 비신앙적 종교행동 때문이었다. ‘OO탐방팀’으로 소속을 밝힌 이들은 시아파 이슬람 중주국인 이란 주요 도시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 등 현지 문화와 어긋나게 행동해 경찰의 제재를 받았다.

아프간 피랍 사태 6년이 지나면

면 교회나 각 단체의 단기팀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사례는 안전사고다. 주로 교통사고나 질병, 의사,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 위기관리재단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2011년의 경우 총 64건의 위기가 발생했고 절반 이상이 사건·사고였다.

한국교회의 단기선교여행 인원은 연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대형교회의 경우 1000여명이 수십 개 국가를 상대로 움직인다. 이들 단기팀의 출발지인 인천공항은 ‘선교사 파송’ 현장을 방불케 한다.

단기선교여행은 흔히 7-10일 동안 해외 선교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를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불린다. 현재까지도 많은 지역교회가 이를 ‘단기

선교한국파트너스 한철호 상임위원장은 “관광과 수련회, 선교기방문 등이 혼합된 게 지금의 단기선교여행 패러다임”이라며 “물량과 체력 중심, 여행활동은 빨리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OM선교회 한윤호 선교사는 “아프간 사태 이후 교회 단기팀이 안전과 위기관리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장기 선교사를 배출하거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선교사는 “단기선교여행을 위해 교회가 1년간 준비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아무리 짧은 단기선교여행이라도 장기적인 계획과 선교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모나리자

##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출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세계종교 문화뉴스

##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새로운 알 카에다 지도부



아이만 알 자와히리

이브라힘 하산 알 아시리(Ibrahim Al-Asiri)를 지목했다. 타임지는 그를 미친 과학자라고 평했다. 지난 2009년 사우디 반테러 국장 암살 시도, 성탄절 속옷폭탄 테러, 2010년 화물기 프란테라 폭탄테러 등이 알 아시리의 소행이다.

알 아시리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 내 최고의 폭탄 제조가다. 그가 개발한 폭탄은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돼 현재의 방식으로는 감지하기가 어려워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알 카에다의 수장들이 죽거나 잡거나 도피 중인 가운데 알 카에다는 전 세계로 흩어져 지역(Local)으로 점점 녹아들고 있다. 중앙조직의 지휘 대신 "지방 분권"체제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 내 대테러 담당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능력이 되기 전 지역별 공격을 통해 이들을 무산시키자는 의견과 이것이 오히려 지역 내 테러리스트들을 양성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 아시리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정책이 어디로 가야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오직 "주적으로서의 알 아시리"만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 동남아 종교 충돌: 불교 vs 이슬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7일, 동남아시아가 이슬람과 불교의 충돌로 "새로운 종교 분쟁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별히 다수 집단으로 상징되는 불교도들이 집단으로써의 우위를 이용, 종교 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무슬림들의 보복이 이어지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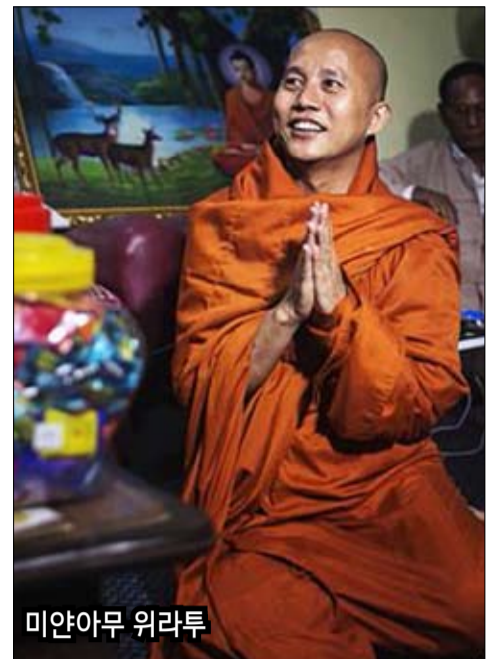
#### 1)미얀마

미얀마는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과 불교도인 아라칸족의 충돌로 무슬림 측에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했고 10만 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미얀마 불교의 새로운 얼굴로 명성을 얻고 있는 승려 "위라투(Wirathu)"의 강도 높은 반이슬람 및 무슬림 비하 발언은 "불교 국수주의"와 폭력을 조장, 정당화하고 있다. 위라투는 무슬림의 높은 출산률이 미얀마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선동한다. 얼마 전 스스로 조직한 강경불교단체 "969"를 통해 불교도 여성이 다른 종교 남성과 결혼 할 경우 허가를 받고 해당 남성은 개종해야 한다는 법률을 입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종교 이상의 원인들이 있다. 새로운 정권의 핵으로 떠오르는 아웅산 수치의 NLD 당의 승리로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 질 것을 염두에 둔 불교계가 반 무슬림 정서를 이용,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2)스리랑카

스리랑카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다. BBS라고 불리는 강경과 불교 단체들은 종교 갈등을 주도하고 있다. BBS의 주요 멤버들은 심할리족이며 그들은 스리랑카가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심할리의 문화를 보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미얀마 위라투

다. BBS는 할랄과 같은 특정 이슈에 반대하며 무슬림 상점과 모스크를 공격했다. 동시에 미얀마에서처럼 많은 정치인들이 불교도들의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무지를 이용하여, BBS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주제들로 불교도들을 선동하고 있다.

#### 3) 인도네시아

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로힝야족과 입장을 같이 하며 연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대는 인도네시아 안에 더 많은 폭력을 불러일으켰다. 5월 초, 두 명의 무슬림 남성이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시도하려던 계획이 발각되며 체포됐다. 그들은 급진주의 이슬람 성직자 아부 바카르 바시르(Abu Bakar Baswir)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부 바카르 바시르는 지난 4월 미얀마의 불교도에 대항해 지하드를 벌인 혐의로 수감됐다.

#### 4) 태국

태국의 남부 지역 또한 분리독립을 외치는 무슬림 주 거주지로서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2004년 이래 5천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무슬림 반군의 전투로 인해 태국 정부군은 불교 승려들과 때려야 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사원들은 군대의 기지로 사용됐고 승병(soldier monks)들이 조종을 한다고까지 말한다. 이런 이유로 무슬림 반군은 태국의 불교 승려들을 사살해왔다. 태국의 불교와 그 구조는 계급 이상의 것이다.

(14면으로 계속)



공격당한 미얀마의 모스크



## 방지일 칼럼 (3) "본대로 들은 대로"

### 전권자가 계시다

국가마다 국민이 투표하여 주권자를 세우면 그에게 전권이 부여되며 대권을 손에 쥐고 있어 국방 외교에서 전권이 부여된다. 그 전권이 국민에 반대될 때엔 대모를 한다. 탄핵을 한다. 심지어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한다. 군사면에 있어서도 국방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할 때는 그에게 전권이 있다. 참모들이 있어 회의도 하고 하지만 전권은 장관에게 있다. 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명령과 순종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치문제 군사문제에 있어 옛날 손자병법이나 현인 성인들이 물어 나라 정치 등을 물으면 그들의 가르침이 후대에 큰 참고도 되거니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절대주권자 전권자가 계시니 그에게 순종할 뿐이다. 최고 고문제도도 있고 그 고문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절대주권자 전권자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삼상17:47) 또 경역도 할 수 있고 참모도 여럿이 있어 머리를 맞고도 의논도 하고 함의도 하고 전략도 새우거니와 종당에는 그의 뜻에 있음이라. "마음의 경역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16:1) 이 절대 전권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그에게 순종만 하면 된다. 세계사에 나타난 전쟁의 승부는 오직 여호와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글자가 남아있듯이 쉽게 누워 얻을 씩음으로 패전의 복수를 그렇게 예비했다는 기록도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분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주권자가 다 주관하시므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이다. 그러나 복음사명에 있어 개 교회를 목회하던지 선교 사명으로 타 문화권에 복음을 증거하던지 그 방안이나 전전에 경험한 그 방안을 참고로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선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다윗 같은 상승장군(常勝將軍)의 이름을 들었던 그도 하나님께 묻고 전선에 나가곤함을 성경에서 보는 바이다.

오늘 선교 전략이니 목회 전략이니 때때로 여는 컨퍼런스가 많기도 하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비결을 뒤로 두는 경우라면 그 세

미나나 컨퍼런스는 도리어 해로운 뿐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묻자는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그 알팍한 두뇌로 글도 나고 말도 해서 다 동종도 하고 성명서도 내지만 극히 조심할 일이라 보여진다. 인위적 일체산물(一切產物)은 하나님의 역사는 못된다. 본분껏 의논도 하고 토론도 강요도 해보면서 절대 전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방언이 앞선다면 인간의 사업이 될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사람이 모여서 결의했으니 사람의 일일 뿐이다. 사람들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이라 그가 하시되 순종하는 자를 찾아 쓰신다. 절대순종하는 자는 그의 뜻을 성취함이며 하나님 자신의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 자신이 하심 뿐이다. 쓰임 받는 인간은 절대순종하는 그를 쓰신다. 인간의 책략, 모략, 방안을 쓰시지는 아니하시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하야 모이는 모든 회의에 있어 그 명에 절대 순종하자는 사인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도 많은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 점을 따로 강조한다. 여기에 반대함을 당하지는 아니하나 인권을 회의 협력 등에 힘을 더실은 듯 함이 때로 보여진다. 그 만 자신의 일을 하고 마는 것뿐이다. 우리 신앙인은 이런 스스로 속는 일어선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역사적 연륜, 그 사남 경험의 앞서게 되면 이는 인위적인 일이다. 자기 일이다. 자신의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성역 운운한다면 이는 망령된 일이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스스로 속아선 안된다. 연륜을 자랑해서는 망령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해(시간)를 쓰시며 감사를 받, 그 연륜 중에 받은 은혜가 지대한데 이 은혜를 내 사유화 하면 행령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절대 주권자에게 속한 자로 순종이 최고 최대의 방안일 뿐이다.

(28권, 2007년)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서부(CA)교회안내</h2>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강화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평일)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p> <p>담임목사 : 김정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천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서부교회</b></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p>	
<p><b>나성제일교회</b></p> <p>담임목사 :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323)388-7101, (F) (32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6:30 EM, 대부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b>남가주리더교회</b></p> <p>담임목사 :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9</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어예배) (KOC:한국어예배) 주일부예배: 오후 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p><b>동문교회</b></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b>동양선교교회</b></p> <p>담임목사 : 박형은</p> <p>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청년예배: 오전 11:00 4부 장년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귀환케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p>	<p><b>드림교회</b></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삼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www.samsungchurch.org Tel: (626)690-9800, Fax: (626)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p>	<p><b>미주양교회</b></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 송정병</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www.milj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손인식</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부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b>브리지교회</b></p> <p>담임목사 : 장세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b>새생명선교교회</b></p> <p>담임목사 : 김만수</p> <p>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부: 오후 7:00(금) 주일학교: 오후 2: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4)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안디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지용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교류부예배: 오전 11:00</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i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erey, CA 91020</p>	<p><b>얼바인침례교회</b></p> <p>담임목사 : 한중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b>요셉선교회</b></p> <p>담임목사 :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주일학교: 오전 11: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301 S. Kingsley Dr., 2F-B-1A, CA 90020</p>
<p><b>월서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 염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찬양예배: 오후 3:55(월-토), 4:20(토)</p> <p>www.gracemci.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p><b>창대교회</b></p> <p>담임목사 : 이준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 찬양: 오후 7:30</p> <p>www.gpc.com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ly.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9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영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천년) 장례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 기독교인 2020년엔 세계 종교인구 1/3 오순절 · 은사주의 교단성장 가장 빨라

[미선라이프] 2020년까지 세계 종교인구가 세계인구의 90%에 이르며 이중 3분의 1 이상은 기독교인(가톨릭 포함)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오순절과 은사주의 교단이 기독교에서 가장 빠르게 성

데다 중국이 개방되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 유교 등이 재출현해 종교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센터는 분석했다. 기독교의 중심축이 비서구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

였다. 연구센터 토드 존슨 대표는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 세계의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통합적 선교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든콘웰신학교 '1970-2020 기독교' 조사 발표

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선교적 접촉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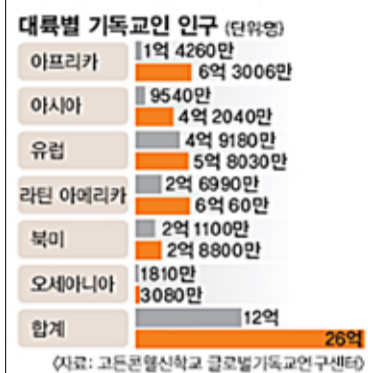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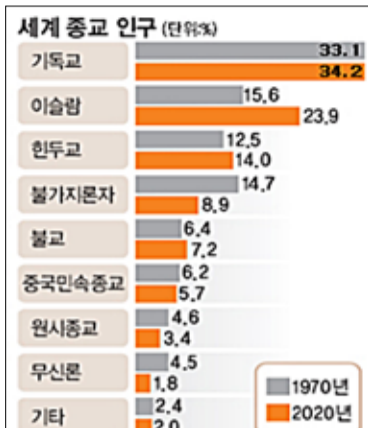
미국의 고든콘웰신학교 '글로벌 기독교연구센터'(연구센터)는 최근 '1970-2020 전 세계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0년간(1970-2010) 전 세계 기독교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연구센터가 세계 종교와 기독교의 변화 추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의 전망과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종교인구는 증가세에 있다. 1970년까지 세계 인구 36억명 중 82%가 종교를 가졌다면 2020년에는 76억명 중 90%가 종교를 갖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독교인은 70년 12억명(33.1%)에서 2020년엔 26억명(34.2%)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50년간의 세계 인구 증가율에 비해 기독교인 증가 비율이 미미한 것은 전체 세계 인구 증가분 중 이슬람 인구가 18억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70년까지 전 세계 기독교의 41.3%에 머물렀으나 2020년에는 세계 기독교의 3분의 2 수준인 64.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북미와 유럽의 기독교인 비율은 더욱 떨어져 2020년에는 34.4%로 낮아질 전망이다.

오순절과 은사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의 약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70년까지 6270만명이었던 이들 교단의 신자들은 2020년에는 7억98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40만명의 서구·비서구 출신 선교사들이 활동 중이다. 복음을 전해야 할 미전도종족 숫자도 70년 3600개에서 2020년에는 1900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슬람교가 다수인 서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비기독교인의 9.9%만이 기독교인과 관계를 맺고 있어 전체 아시아 교회의 성장에 비해 선교적 접촉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역시 비슷해 각각 11.9%에 머물렀다. 북미와 서아프리카의 선교적 접촉점은 각각 80.2%, 23.5%



국기	파송 선교사 수
미국	122만7000
브라질	32만4000
프랑스	29만1000
스페인	29만1000
이탈리아	2만
한국	2만
영국	12만5000
독일	12만4000
인도	1만
캐나다	8500

## 세계종교 문화뉴스

(13면에서 계속)

### 터키 과거 기독교 역사 말살 운동

터키 정교회와 모스크로 탈바꿈됐다. 7월 5일 터키 동북부 항구 도시인 트라브존의 무프티(이슬람학자)는 신도들과 함께 모스크가 아닌 정교회에서 라마단 달의 금식을 알리는 첫 번째 금요기도회



터키 정교회가 모스크로 탈바꿈하고 있다.

를 가졌다. 이것은 이스탄불의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이 모스크로 개조됐던 1462년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상징적으로 재연한 것이었다. 트라브존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것보다 덜 웅장하다. 그러나 이 건물 또한 13세기 비잔틴 건축의 가장 우수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것은 세속주의와

이슬람 간 전쟁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성당은 16세기 무렵 모스크로 개조됐다가 1964년에 박물관이 됐다. 그러나 다시 무슬림들이 지방 법원을 통해 해당 건물이 "불법적으로 점유"됐다는 승소 판결을 받으며 모스크로의 전환을 허가받게 됐다.

터키의 역사는 이러한 결정이 오스만제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과거 기독교 역사를 지우려는 국가적 차원의 극단적인 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슬람 사법부와 개발부는 라마단에 맞추느라 서둘러 이러한 개조를 단행했다. 이러한 개조 허가는 사실상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의 미래 또한 불안하게 만든다. 실제 무슬림들은 이러한 기독교적 유산에 대한 개조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기독교 문화가, 역사가 위협하다.

희랍정교회(비잔틴기독교교회)의 본산지인 터키가 이슬람화 된 것은 서방 기독교의 수치다. 이미 본 뉴스 레터는 이 사건을 두고 말틴 루터는 서구 기독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 서방 국가에서는 교회당이 모스크로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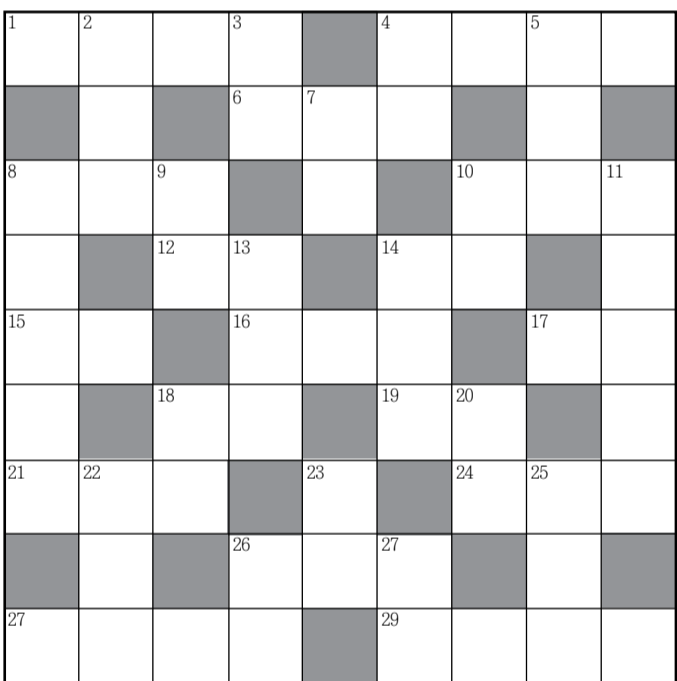
### 캄보디아 선거소식

지난 12일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별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한국식으로 전형적인 여초야도였다. 프놈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야당이 승리했다. 선거 후 야당 지도자 삼렐시를 둘러싼 말들이 많다. 미국에 있는 "팔 졸업식에 갔다"거나 야에 미국으로 "망명갔다"는 소문이 있다. 유엔과 미국에 야당의 승리를 호소하고 유엔이 "재검표하도록 설득하라 갔다"는 이야기까지 많은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미있는 현상은 12일 아침 선거위원회가 지방별 선거 결과만 발표하고 전체 발표는 한 달 후에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선거가 끝났지만 프놈펜은 아직까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장갑차와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선거결과 발표 이후 야당 지도자 손석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거부, 맹비난하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은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십자말 · Cross Word (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1. 맹세의 우물이란 뜻(창21:31).
4. 그랄왕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궁녀를 삼으려다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므로 포기함(창20:2).
6. 좋거나 못하거나...(레27:12).
8. 다윗의 30용사 중의 한 사람인 엘리야바의 고향(삼하23:32).
10.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중의 한 사람이니 아디엘의 아들(대상9:12).
12. 가축을 잡아 죽임(사44:22).
14. 사람을 남몰래 죽임(신27:24).
15. 에돔의 북부지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예언되었다(욥1:9).
16. 아라비아의 드단족(창25:3).
17. 아들과 또 그 아들(수17:2).
18. 조심스럽게(빌3:2).
19. 이스라엘 최후의 왕 호세아의 부친(왕하15:30).
21. 레위의 장자요 립니와 시므이의 부친(출6:17).
24. 다니엘의 세 친구중의 한 사람. 본명은 하나냐(단3:16).
26. 기술에 관한 재주와 능력이 있는 사람(전9:11).
28. 다윗의 아들중 하나(대상14:7).
29.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들어 아름다운 잎을 가진 나무. 설악산이나 속리산 것이 유명(겔31:8).

### <세로 푸는 열쇠>

2. 에훤이 후심에게서 낳은 아들(대상8:12).
3. 이두매에 있는 고을(창36:39).
4.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아이를 치다가 패하였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후에 돌에 맞아 죽임 당함(수7:20).
5. 예수의 족보 중 한 사람인데 다윗의 고손자(눅3:31).
7. 꽃이 수정하여서 그 씨방이 발육한 것(눅6:43).
8. 소아시아와 마케도냐 간 예지안 해 중에 있는 작은 섬(행16:11).
9. 소아시아의 한 도로. 북은 흑해로 남은 갈라디아(벧전1:1).
10.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한 지방 이름(대상6:74).
11. 손가락 중의 막내(왕상12:10).
13. 바산의 동쪽 경계에 있는 성읍(신3:10).
14. 바란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모세가 보낸 단 지파의 두령. 그랄리의 아들(민13:12).
18. 이스라엘의 사사.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죽이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1천명을 죽임(삿16:1).
20.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창10:19).
22. 잠언31장의 주인공(잠31:1).
23. 권세와 일을 처리하는 능력(사10:34).
25. 에스돈의 아들(대상4:12).
26. 배(腹)를 바닥에 붙이고 움직여 나가다(창1:24).
27. 스스로 완전히 결정함(출18:26).

### 십자말 정답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7. 사모의 영성 가꾸기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마5:3). 사모는 가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가난은 돈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마음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무엇인가 팔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있는가하면 팔 것이라곤 전혀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후자를 말합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러다가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사모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해. 반드시 할 거야. 쓰다만 사모책의 머리말도 마치 완성할거야” 하면서 또 다시 연필을 들다가 다시금 혼수로 병원행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그동안 믿어왔던 십자가를 무력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힘을 주지 못하는 나무토막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금도 의심없이 열심히 믿어왔던 십자가였는데 남편의 죽음이 없어도 그 십자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십자가인가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하고 가련한 모습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도 흔한 믿음이 내게 없네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이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어이해 당하셨나 채찍과 멸시전대 어이해 당하셨나 어느 여가수의 목소리는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요. 그때 이후로 믿음은 그냥 받는 선물인가에 주는 자가 없으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실히 알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펴면 글씨가 모두 고체로 보였습니다.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모릅니다. 텅빈했던 십자가, 날 위해 피흘리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서 그 십자가는 나의 힘없는 손을 끌어 일으켜 주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 주님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 되어 회복되지 않은 몸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찬양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이 가난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목회를 꾸무고 준비하는 부부를 보면 어떤 이들은 개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먼저 열심히 벌어서 건물이라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모으면 그것으로 개척을 시작합니다. 당분간은 교회에서 사레금이 나오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 것을 다 들고 나갑니다. 그동안 감추어 놓았던 돈도 다 털린 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는 날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의지할 것 없을 때까지 낮추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의 의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천국시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고 경험되게 하려고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랜 목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2003년도의 일입니다. 갑작스런 출혈로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앓고 있던 C형간염이 간경화증으로 났습니다. 간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로 간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간 속의 TIP(티엔형)로 생긴 플라스타틱을 넣는 시술을 받고 퇴원하여 간이식 Waiting list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아내교실로 사모교실로 신나게 사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홀로 침상에 누운 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모들이 병문안을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아무 할 일 없을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사역에 목숨을 걸기로 하고 시작한 후반전 생애였는데 이젠 이것으로 모든 사역의 막을 내려야 하나 생각하며 침대위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앉게 되고 눈물 뿌려 주님 앞에 통회하는 울음은 어느새 뜨거운 사랑감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으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는 희한한 힘이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다시금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일이 재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꿀송이같이 단 맛을 생활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사모들의 눈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슴을 헤치고 나오는 찬송의 고백은 슬픔 속에서도 고요한 밤의 적막을 깨웁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어디든지 마다않고 가겠습니다. 보내만 주세요. 이왕에 살려주셨으니 오대양 육대주 다 다니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 정말 계요. 비록 자동차 운전할 줄 모르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오지에서 눈물 흘리는 사모들을 찾아가 그 눈물 닦아주는 티슈가 되게 해주세요.” 이 눈물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오대양육대주를 다니며 사모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게 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티슈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의지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야 비로소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애달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은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중보기도자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 월 유일한 진리이신(the Truth)예수님(요14:5-6)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요10:30).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a person).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힘으로 법적으로 영향력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좋아하시며, 소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holy). 죄가 없으시며 공의가이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mercy). 예수님께서 땅에 신음하고 도움을 요청한 모든 이들의 아픔을 거절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신음을 듣고 응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 화 유일한 생명이신(the Life)예수님(요14:5-6)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성경은 자연인에 대해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법과 방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하여 심한 생명을 갖고 있는 듯하나,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며,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그들 안에 영적인 생명이(spiritual life) 없음을 증거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눅15:24)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 수 그보다 더 큰일도 하리니..(요14:1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아픈 이들을 치료하셨고, 예수님과 만나는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으며, 소수의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더 위대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했던 사역을 고스란히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더 웅장하게 될 것입니다.

### 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요14:13-14)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도 응답의 의무 아래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자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

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 금 법 수호와 하나님 사랑 1(요14:15)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기 위해 그 법을 발의한 정치가를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발의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

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법에만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없애지고 사랑을 정죄하는 법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 토 법 수호와 하나님 사랑 2(요14:15)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반역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 안에 있는 이 반역을 거스르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싶어 하는 마

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닮고 싶어 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성을 향한 갈망이 더욱 더 커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적 이고도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이 반신 경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987-8754~5 군포시 금정구 서초2동 675-15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490-7000, Fax. (0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2-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고광역시 북구 금양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4,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87(외국통화) VIA DEI QUINTILI 32-36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사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터미널 4호 Tel. (02)12-440-9000, Fax. (0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상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명동3동 622-3 (158-053)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정미)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목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안국구 목동2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92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화동2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b>수령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애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사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원동 137 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새벽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b>안양 제1교회</b>  담임목사: 조 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신구 용암동 415 www.yango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jungsu-jung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01(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	<b>청주주요신학교</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b>뱅크비발리메이교회</b>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금요기도회: 새벽 5:00, 7:00 금요일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3,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부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전 7:40 유. 초. 고. 초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얼 설교) E-mail: hanim@hanmail.net Cervantes N. 1001, Asunción-PARAGUAY





#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5)

-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묵미술선교회 회장)



유대인 지역

## E. 예루살렘 지역

E-19. 성묘교회(Church of the Holy Sepulcher)

무덤교회(10처-14처)가 있는 비아 돌로로사(14호 참고)에서 마지막 14처소를 말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무덤을 덮고 있는 작은 건물(에디쿨 Aedicule)을 말한다. 즉 건물 안에 또 작은 건물이 있는 것이다. 순례객이 몰릴 때는 밖에서 사제가 따로 나와 지고 서서 출입 인원을 조절한다. 천사의 방과 예수님 무덤방, 2개로 나뉘어져 있어 4-5명 정도 들어가 서 있을 수 있으나 합쳐서 12명 정도 들어설 수 있다. 천주교회서 말하는 마리아가 죽었다는 장소에도 마리아 성묘기념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혼란을 야기 시키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은 여기와 또 다른 곳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묘교회 밖에는 그리스정교회의 카톨릭(Katholic)이 있고 그들은 이곳을 'The Omphalos'로 부르며 '세상의 중심' 혹은 '야담의 배꼽'으로 여긴다.

현재 이곳만은 세 종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신이 있었던 곳이라고 알려진 곳에는 중앙에 그리스정교의 쫓대와 향로가 있고 왼쪽으로는 가톨릭의 부조가 오른쪽으로는 아르메니아의 그림이 있다. 시간도 셋이 나누어 쓰고 미리 신청 받은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며 줄서서 들어온 신자들이 5-6명씩 기도하기도 한다. 마리아라도 된 마음으로 달려와 기도하고 싶겠지만 다른 곳은 몰라도 부활로 인해 유일하게 무덤이 없으신 예수님이심을 생각하면 빈 무덤을 왜 신봉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E-20. 베데스다 연못 (Bethesda Pool)

'자비(은혜)의 집'이란 뜻의 간혈천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곳이다(요5:2-9). 상하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연못이랑기보다 물 저장고의 기능을 하는 하천이다. 구약에서는(사



골고다 언덕(왼쪽은 발견당시, 오른쪽은 현재)

7:3; 36:2, 왕하 18:17) '잇못 수도'라고 명명되는 곳이다. '아랫못'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히스기야 터널로 흘러 실로암에 고이는 기원 샘을 의미한다.

비잔틴 시대에는 이곳에 인공 못 저수지가 더 크게 확장됐다. 십자가군이 교회를 짓고 페르시아가 파괴하는 등 수많은 역사가 못은 더욱 깊게, 건물은 더욱 높게 만들어졌다. 134년 유대의 2차 항쟁을 진압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아예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을 '엘리아 카피톨리아(엘리아의 수도)'로 개명하고 솔로몬의 행각이 있다는 자리에 의학의 신의 이름대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짓기도 했다.

지금은 많은 동굴과 물웅덩이 저장고가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성안나 성당이 지어져 있다. 베데스다를 보려면 처음부터 이 교회를 거쳐 드나들게 된다(입장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공명이 매우 잘되기로 유명하다. 우리는 순서를 기다려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우리말과 영어로 4부 혼성으로

불렀다. 다른 순례객과 관광객들은 물론 일하는 사제들까지도 하던 행동을 멈추고 우리의 찬송을 신기한 듯 숙연하게 들었다. 부르는 우리도 놀랐다. "모자만 벗어놓으면... 여기서 헌금을 받아 신학교 장학금으로 주어도 좋겠다는 마음까지 일 정도였다.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실 랑으로 "네가 낫고자하는가?"고 물으시는데 정작 기적의 장본인을 몰라보고 기적의 소문만을 좇아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부탁이나 하는 병자처럼 우리 인간은 "주님,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고쳐주세요"라고 고집하는 무지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젠 성경을 통해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곳보다는 어디가 물이 동한 곳이었는지에 관심이 더 많이 있으신 어떤 분을 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들었다. 그래서 보아야만 믿는 사람을 위해 사진중앙 돌기둥 밑 부분 코너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곳이라고 숫자 5번 팻말이 있는 곳이다.

E-21. 유대인 지역

예루살렘 성내에 앞서 얘기한 대로 4개의 쿼터로 나뉘어진단다. 오른쪽으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모슬렘 쿼터(Quarter)는



예루살렘 모자이크

북동쪽이고 그 밑 남동쪽이 유대인 쿼터, 왼쪽으로 북서쪽이 그리스정교 같은 교회가 관할하는 곳을 말한다. 그 밑 남서쪽이 아르메니아 쿼터다. 우리는 성내에서 구별 없이 이쪽저쪽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딱히 유대인 지역만을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상점과 상인들의 구별은 쉬웠다. 유대인 지역 가게가 모슬렘 지역 가게보다 단조롭고 깨끗했다. 유대인 지역에는 호화로운 돌집들이 많고 유럽에서 가져다 심은 각종 꽃 특히 제라늄을 진흙 화분에 심어 집을 장식하고 자스민과 등나무도 많았다.

높은 언덕에는 주로 사우디 왕들이 묵는 가장 비싸다는 킹데이빗 호텔이 있었지만 우리는 도시락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것도 냄새나면 안되니까 또 청소하기 힘들니까 "홀리고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야 했다.



에셀나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던 메드바(민21:30)에서 발견된 모자이크 지도의 일부에 나타났다는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다메섹 문에서 시온 문까지 난 긴 열주 가운데 일부가 발견됐는데 카르도(Cardo)가 눈에 띈다. 그밖에 다윗의 망대, 무덤교회, 시온산, 가장 아름답다는 다메섹 문, 하드리아니 기둥 등이 묘사되었다. 이 지도 중에서 예루살렘 지도만 다시 본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다. 초등학교 학생 무리인듯 싶은 유대인 순례객이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들을 보자 예의 "강남스 타일"을 또 불러대는 것이 아닌가...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올리브를 짤 때 껍질을 벗기고 기름 짜는데 쓰이는 연자 맷돌도 보고 냄새가 구수한 빵 공장도 보았다.

또한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로마식 사령놀이라 할 수 있는 카르도 즉 아케이드가 있는 변화가를 지나갔다. 다양한 주두(Capital)들의 여러 모습에 감탄했고 한쪽 벽에는 로마시대에 상거래를 하는 상상도가 크게 그려져 있어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카르도가 세계 곳곳에 세워졌음을 짐작케 했다.

E-22. 정원무덤교회 (The Garden Tomb)

E-19 성묘교회와 달리, 예루살렘 성벽에서 북쪽에 있는 다메섹 문 밖에는 영국의 고든장군이 발견했다는 골고다(해골, 라틴어로 갈보리)언덕을 중심으로 성경을 근거로 찾아낸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곳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무덤이 있다. 두 무덤 모두 예전에는 성 밖에 있었다. 맞은 편에는 해골 언덕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다.

영국에 본부가 있는 The Garden Tomb Association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인 이진원 스텝을 만나니 반가웠다.

다소 쌀쌀한 날씨지만 우리는 십자가 모양의 소나무가 있는 정원의 의자에 앉아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부르니 몸이 달아오르는 듯했다. 옆에는 오래된 빛나무 옆에서 순례단은 예배도 드리고 성찬예식도 했다.

특히 이곳 디렉터인 리처드 씨의 연간 90여개 국에서 25만 명이 다녀간다는 소개도 들었다.

F. 남방 사해지역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예비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F-1. 텔 셰바 (브엘셰바, Beersheva)

브엘은 우물이란 뜻의 지명이요, 셰바는 맹세니 '맹세의 우물'이다. 완전수 7에서 셰바가 나왔다고 해서 '7개의 우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유대 땅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45Km 정도에 위치한 이곳에는

시므온 지파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곳에 거주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맹약한 곳이다(창21:22-33, 26:26-33). 사무엘의 아들이 살았고(삼상8:2)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호렘산으로 갈 때 이 곳에 들렀고(왕상19:3)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한 후에는 유다자손이 살았고(느11:30) 아모스 선지자가 이곳에 세운 우상들에 대해 통탄해했던 곳이다(암5:5, 8:14).

작은 도시지만 계획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는데 텔(Tel)에 대해 지식이 들어간 우리들은 더욱 진지하게 들여다보았다. 집은 특히 유대인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사방 구조로 돼있다. 마당에서 아무 방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으로 곧장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문(Four Chamber Gate)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장로들의 재판 등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다. 그밖에 와디 등에서 끌어 모아놓은 물 저장고나 창고가 있으며 제단의 사방에 뿔이 달린 것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보니 미국 필라델피아 랭캐스터에 있는 성막 모형을 본 것 같아 반갑고 은혜로웠다.

창세기 21:33에서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eshel) 나무를 이곳에서 실컷 보았다. 잎이 없는 타마리스크 나무라지만 위성영상에 속한 이 나무는 상록수처럼 푸르다. 한마디로 소금처럼 짠 나무다. 땅속 30m까지 뿌리를 뻗어 지하수를 흡수하며 잎이 가늘고 비늘처럼 돼있어 증산작용도 적으니 건조한 곳에서도 늘 푸르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보다.

이스라엘에서 알아야 할 성경 속의 나무라면 로렘나무, 싯딤나무, 석류나무, 주염나무, 무화과나무, 갈참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종려나무, 백향목이며 잘못 알려진 로렘나무와 달리 느티나무처럼 그늘을 제공하는 이 에셀나무일 것이다.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카르도

OC 애나하임에 소재한 커널대학교

## 경 신임 이사장 김화영 박사 축



- 조선 의대 및 대학원 졸업 (의학박사 및 피부과 전문의)
- 보스턴 보건대학원 (지역 만성병) 졸업
- Atlanta 신학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국립소록도 나병원 진료부장
- 국립 나병관리 및 아시아 나병관리 협회 진료부장.
- Albert career school 총장 (Founder/CEO)
- Albert senior daycare & home care center (Founder/CEO)
- 노아은행 이사장 (Founder/ Director)
- 커널 대학교 (Kernel University) 이사장.

### 2013년도 학생(장학생)모집

대학교 과정(BA)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학(B, Th.)</li> <li>• 기독교 교육(B, C, E.)</li> <li>• 기독교 상담(B, C, C.)</li> <li>• 선교학(B, M.)</li> </ul>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과정(Master) 2~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 교육(M, E.)</li> <li>• 신학(Th, M.)</li> <li>• 목회신학(M, Div.)</li> <li>• 가정상담(M, F, C.)</li> <li>• 선교학 (M, M.)</li> </ul>	대졸 및 동등학력자
박사과정 (Doctor) 2~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 교육(D, C, E)</li> <li>• 목회학(D, Min.)</li> <li>• 기독교 상담(D, C, C.)</li> <li>• 선교학(D, Miss.)</li> </ul>	대학원 및 동등학력자

성경/신학 영어 ESL 과정  
가정상담사 자격증 (Marriage Mentorship) / 영성 상담사 자격증  
케이르(Keir 성경연구)인도사 자격증 / I-20 발행



## 커널 대학 가을학기(2013) 오픈 하우스 및 1일 세미나

### Kernel University 2013 Open House

보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 연구, 외도나 이혼, 사별 및 가정 문제의 상담과 회복 등, 실천적 사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1일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경건 생활이나 사역의 현장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1일 상담 세미나" : 2013년 8월 17일(토) 오전 9:30 am - 12:30 pm
  - 1) 건강한 영성(Healthy Spirituality) - 심 명구 교수(Ph.D.)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영성 추구" (How to help change people)
  - 2) 외도문제 상담(Affair Repair) - 단 페터스 교수(Dan Fetters, D.E.T.)  
"불륜의 원인과 관계 회복" (Affair Issues and Restoration)
  - 3) 위기가정 상담(Trauma/ Grief Share) - 금 병달 교수(D. Min.)  
"이혼 및 사별 가정 회복모임" (Divorce Care/Grief Share) / 학사 안내
2. 대상: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크고 작은 가정의 위기를 만나 충격적 경험을 하신 분들을 돕고자 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3. 장소: 커널 대학교 [www.kernel.edu](http://www.kernel.edu)  
주소: 3321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Western과 Knotts 사이)
4. 등록비: 20 불(교재 및 간식비 포함)



커널 대학교  
Kernel University

등록 문의 : 714) 995-9988 , 714) 287-2458  
[www.kernel.edu](http://www.kernel.edu)